모태범 오늘 500m 금빛질주

메트로 2014년 2월 10일 월요일

한국 vs 안현수 숙명의 대결

들통난 갑질에 '민심 호통' 쓴맛

연중기획 '다시 공정사회다' -3 갑의 횡포 끝내야 산다

"물건 못 받는다고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받아서 빼 죽어버린다. 진짜. 씨X 그럼 빨리 넘기던가. 씨X 그걸 1년 동안 알아봐요? 당신 그걸 팽개 댈 이유가 있어? 내가 해줘서 하는 거지. 당신이 그걸 노력해서 하는 거야? 당신 목표가 뭔데? 당신이 한 게 뭐있어. 잔인하게 해줄게 내가. 핸드폰 꺼져 있거나 하면 알아서 해. 아주 망해! 망하라고요! 당신 얼굴 보면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로 주가하락·불매·대표 고발 '최고 갑' 유통 오너들 경제민주화 타고 줄줄이 법정행

지난해 5월 초,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남양유업 사태의 발단을 일으켰던 전화 통화 내용이다. 이 녹음 파일은 지난 2010년 당시 34세였던 남양유업 사원과 56세였던 경기도 일산 한 대리점주와의 통화 녹취 내용이었다.

이후 이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남양유업을 넘어 만연하고 있던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특히 마치 주종 관계를 정하는 듯한 '갑을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일으켰다. 잇따라 벌어진 '라면 상무'와 '신문지 과장', CU점주와 배상면주가의 대리점주 자살 사건 등이 이와 맞물려 단지 계약서상의 문구로만 여겨지던 갑(甲)과 을(乙)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가맹본부와 가맹점 등의 관계로까지 확대됐다.

게다가 남양유업 사태로 불거진 물품 밀어내기와 떡값 요구, 비정규직 문제,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 등 불공정 관행들에 대해 대리점이 있는 식품업체뿐 아니라 협력업체로부터 납품을 받는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등이 '횡포를 부리는 갑'으로 지목되면서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됐다.

경제민주화 정책이 심화되고 갑을 관계 등이 사회 이슈화되자 유통 재벌 오너들은 줄줄이 재판정에 불려나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등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법정에 피고인으로 출두했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용진 부회장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이마트에브리데이가 상품만 공급해주는 소규모 슈퍼마켓에 이 회사의 간판을 달게 해줬다가 "변종 업태를 만들어 골목 상인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수모를 당해야 했다.

이런 양상은 급기야 정치권에서 관련 위원회까지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도 남양유업 사태로 불거진 본사와 대리점 간의 잘못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전반적인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대표적 갑(甲) 업체들 앞다퉈 상생 동반성장 목소리 높여

이렇게 국회와 정부기관의 전방위 압박과 국민들의 지탄이 이어지면서 불공정 기업으로 지목받은 업체들은 자구적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유통업체들은 우선 '을 되기 운동'이나 계약서에서 갑과 을이라는 표현 없애기 등의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주가 하락과 불매운동, 검찰고발, 과징금 폭탄 등을 맞은 남양유업의 경우 지난해 7월 18일 새로 전직 대리점주들의 모임인 대리점 협의회와 전격적인 타협을 통해 ▲피해보상기구 공동 설치를 통한 실질적 피해액 산정 및 보상 ▲불공정 거래 행위 원천 차단 ▲상생위원회 설치 ▲대리점 협의권 회복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 회사의 김웅 대표는 그동안의 잘못으로 인해 지난 1월 28일 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사회봉사 160시간, 집행유예 2년을, 회사는 벌금 7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불똥이 튄 유업계에서는 다소 뒤늦은 감이 있지만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서울우유는 지난해 12월 16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도입을 알리는 선포식을 열었다. 매일유업도 지난 1월 14일 상생경영 선포식을 열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다짐했다.

한국야쿠르트는 매년 1월 23일을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날'로 정해 부당한 공동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표시 광고에 대한 사항 등을 점검키로 했다.

<3면에 계속>

/정원일기자 jeremy@metroseoul.co.kr

눈폭탄에 고립무원 산간마을 길 뚫는 진짜 사나이들 강원 동해안 영동 산간에 지난 6일부터 나흘간 80㎝가 넘는 눈폭탄이 쏟아져 가옥이 무너지고 산간마을 주민들이 고립되는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됐다. 9일 오전 육군 8군단 특공대대 장병들이 양양군 서면 수리지역에 고립된 이모(87)씨 가옥의 길 내기 작전에 투입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날 강원도 교육청은 강릉과 양양·속초·삼척·고성 등 동해안 5개 시·군의 초·중·고교 및 유치원 등 41개 학교에 10일 임시 휴교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sochi.ru 2014

메트로신문 '소치 올림픽 특별호' 배포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에서 메트로 배포 도우미들이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메트로 소치 올림픽 특별판을 배포하고 있다. <관련기사 22·23면>

/손진영기자

교황, 윤지충 바오로와 123위 시복 결정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의 가톨릭 순교자인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의 시복을 결정했다고 바티칸 뉴스가 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교황은 예상대로 8월 방한해 성모승천대축일인 15일 국내에서 시복식을 직접 주재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교황청 해외선교 언론매체인 아시아뉴스는 "교황은 8월13일 대전에서 열리는 아시아청년대회 개막미사에 참석한 뒤 15일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의 시복식을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전했다. 또 교황이 귀국하기 전인 18일 "전적으로 북한을 위한 미사가 거행돼 있다. 이 미사는 북한에 평화와 통일을 직접 촉구할 것"이라는 소식통의 발언도 덧붙였다.

시복(諡福)은 가톨릭 교회가 공경하는 인물인 '복자(福者)'로 선포하는 것을 말한다. 복자는 성인(聖人) 이전 단계다.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는 조선왕조 때인 1791~1888년 유교를 어겼다는 이유로 순교했다.

이와 관련,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측은 "시복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다만 교황청에서 시복식이나 교황의 방한과 관련해 통보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겨울국회' 더 꽁꽁

김용판 1심 무죄 판결 관련해 여야 '특검·해임안' 정면충돌

대선개입 의혹 축소수사 혐의를 받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여야가 '특검·해임안'을 놓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9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을 위한 회담을 여권에 촉구하면서 불응 시 "강력한 투쟁에 들어가겠다"며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의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지난해 12월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간 합의문을 거론하며 "새누리당은 하루빨리 회담에 응하라.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과 국회 의사일정에 관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원내·외 병행 투쟁과 지방선거 '정권 심판론' 카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7일 황교안 서남수 장관 해임 건의안은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특검 도입 요구를 '3권 분립 훼손'으로 일축하면서 민주당을 '대선 불복 세력', '정쟁 유발 세력'으로 규정하며 압박하고 있다. 장관 해임과 관련해서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라 국회 표결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단 이번주 10~12일 국회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어 여야 간 팽팽한 설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6·4 지방선거의 서막이 오른 만큼 초반부터 기선을 제압하려는 여야 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관악산 뜬 정몽준 – 창원 누빈 김한길 휴일인 9일 여야 정치인들이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의 걸림돌 최고점을 수렴하기 위해 동작구 주민, 30여 명과 관악산을 등반했다(왼쪽).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부인 최명길씨와 경남 창원시 중앙시장을 방문해 '민심투어'를 펼쳤다. /연합뉴스

안철수 신당 '새 정치 플랜' 내일 공개

내달 창당 앞두고 비전 발표 '지방정부 플랜' 이은 두번째

3월 창당을 앞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11일 신당이 추구할 '새 정치'의 큰 그림을 공개한다.

안 의원 측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11일 오후 서울 대방동 여성프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새정치국민대토론회'를 열어 새 정치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 기조, 새 정치의 비전 등 '새정치 플랜'을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목포에서 새정추가 추구하는 '지방정부 플랜'을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콘텐츠를 공개하는 자리다.

새정추는 토론회에서 한국 정치의 낡은 구조를 타파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펼쳐야 하며, 한국 사회에 넓게 퍼진 정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약속을 지키는 정치가 중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김동호기자

해수부 후임 서병수·유기준 등 거론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를 받아들여 윤 전 장관을 해임한 뒤 곧바로 후임자 물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 원유 유출 사고 수습과 함께 수장의 낙마로 동요하는 해수부의 조직을 빨리 안정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연구원 출신인 윤 전 장관이 엇딘 실언과 정무 감각 부재에 시달렸기 때문에 후임 인선은 정무 감각과 행정 능력, 조직 장악력 등이 두루 고려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이런 배경에서 4선 중진으로 부산에 지역구를 둔 친박계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과 해양 전문 변호사 출신인 3선의 유기준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또 인천 출신으로 '바다와경제 국회포럼' 공동대표인 재선의 박상은 의원, 농어촌공사 사장을 지낸 재선의 홍문표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올라있다. /김민준기자 mkim@

2014년 서울지역본부 신년업무보고 및 토론회

건강보험공단 신년 업무보고 및 토론회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일보 건물 6층에서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신년업무보고 및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온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 이른바 '무라야마 담화'의 주인공인 무라야마 도미이치(90) 전 일본 총리가 정의당 초청으로 11일 방한한다.

정진후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무라야마 전 총리의 방한 일정을 공식 발표하며 "무라야마 전 총리가 청와대 방문 의사가 있어서 이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한·일 양국이 과거사 및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라야마 전 총리의 면담 의사를 수락할 경우, 두 나라의 외교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형 전투기 4월 입찰공고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사진)'를 개발하는 사업 일정이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은 9일 "우리 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보다 성능이 우수한 KF-X 개발을 위한 사업 일정이 확정됐다"면서 "4월에 개발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하고 6월에는 우선협상 대상 업체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군은 2022년까지 미디엄(Medium)급 전투기(KF-X) 120여 대를 국내 개발한다는 목표다. 미디엄급은 기동성은 KF-16과 유사하지만 탑재되는 레이더, 전자장비 등은 더 우수한 전투기를 말한다.

KF-X 사업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제 엔진 형태를 '단발' 또는 '쌍발'로 할지 결정만 남겨놓고 있다. 국방부는 방사청과 합참, 공군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으로 구성해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준기자

'연매출 80억 매장' 문닫게 한 시민의 힘

연중기획 '다시 공정사회다' 3 갑의 횡포' 끝내야 산다

변종영업 늘리는 대형유통업체 광란 을의 대반란
경제민주화 법안 잠재우는 국회 갑질부터 중단을

<1면에서 계속>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의 대형 유통업체와 CU 등 편의점 업체들도 납품업체와의 상생과 동반성장 약속, 점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자율적 상시 기구 구성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가장 최근까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지적을 받아 온 화장품 업체도 여기에 동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 의무휴업으로 매출 감소 시민단체 압박에 기업형 슈퍼마켓(SSM) 문 닫기도

지난해 국내 대표 유통업체인 이마트는 월 초부터 지난 10월까지 누적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3% 줄었다. 이마트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1993년 창동점을 연 이후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재래시장 출점 8㎞ 등의 이유로 각종 규제가 늘면서 대형마트와 SSM의 출점이 쉽지 않게 되자 재벌 대기업들이 변종 SSM과 상품공급점 등을 곳곳에서 출점시키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 유통재벌 대기업들의 대형마트와 SSM 가운데 전국 최초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망원점이 전격 폐점했다. 한 해 매출 80억원대의 망원 SSM의 개점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장과 풀뿌리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에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가 중소 제조업체의 모임인 한국유통상신자연합회는 서울역 등에서 집회를 열어 "농민 소득을 줄이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귀 닫은 정부와 기관 편히 보여는 대기업과 가맹본부들의 불공정 행위 막을 의지 있는지 의문

일반적인 유통업계의 불공정 행위 수법은 비슷하다. 바꿔 말하면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불공정한 사항들을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쟁만을 앞세우는 여야의 대치 정국이 계속되면서 경제민주화 입법들은 빛을 보지 못한 채 국회 창고에서 썩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입맛에 맞는 법안들만을 골라내고 있다

그 예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해 가맹사업 시행령 개정안과 경제민주화 관련 3개 법률을 통과시켰다. 공정위는 이 개정안이 이해관계자 및 업계 현실을 반영했다 설명했다. 하지만 이 시행령은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 반쪽인 '개악안'이라고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 의견에 귀를 열고 소통해야 할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20일 관련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개선 의견서를 묵살하고 의신은커녕 공청회와 간담회 요청도 무시했고,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면서 주요 조항에 대해 일몰조항을 신설하는 등 개악안으로 국무회의 통과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입으로만 소통을 외치는 정부와 기관들이 존재하고 수수방관하고 제 역할은 다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국회의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남양유업 사태와 함께 궁지에 몰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대리점주·시장 상인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각 기업의 자정 노력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 각 기업은 우선 지난해 벌어진 남양유업의 사태를 교훈 삼아 재발 방지에 앞서야 한다. 상생위원회의 조직과 실천하지 않는 약속들은 오히려 국민은 물론 대리점주·협력사들의 비난만을 키울 것이기 때문이다. 각 기업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기 전에 진정성을 가지고 대리점주·소비자·협력사 등과 상생·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전제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공정 사회를 이루는 길은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정영일 기자 ajoo@metroseoul.co.kr

◀ 전국 CU 가맹점주들의 투표로 선정된 가맹점상생협의회가 지난해 12월 23일 구성돼 공식 출범했다 /CU 제공

▲ 욕설 파문으로 사회초과에 이른 남양유업 임직원들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구정소식

관악 다음달부터 수화교실

서울시 관악구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마음의 울림 수화를 배우다' 수화교실을 다음달부터 운영한다

수화교실은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과 주민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것으로 수화기초반과 중급반이 3월과 5월에 개강해 주 2회씩 15회로 운영된다

도봉 '에코스쿨 조성' 첫삽

서울시 도봉구는 9일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서울인강학교와 동북초등학교 옥상에 '에코스쿨 조성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옥상에 꽃과 나무를 심고 텃밭을 가꾸는 에코스쿨 조성사업은 자연친화적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생태 녹색화를 추진한다

구로 '읽어주는 영화 동화'

서울시 구로구는 9일 '언니 오빠가 읽어주는 영어 동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등학생들이 유치원·초등학교 등을 방문해 영어 동화를 읽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등학생들이 교재로 활용하고 아이들에게 읽어줄 동화책은 신도림 작은 영어도서관에서 지원 받는다

누구 코가 먼저 잡힐까 14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경기도 수원시 고색동에서 마을 주민들이 9일 한해 농사의 풍년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민속 줄다리기 '코치아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이 '노점 허가증 장사'

서울시 구청 공무원이 불법 노점 영업을 묵인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9일 용산구청 공무원 이모(52)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임모(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청에서 도로 영업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던 이씨 등은 2009년 3월 구청의 허가 없이 가판대를 운영하던 노점 상인 3명으로부터 허위 영업 허가증을 발급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9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300억 대출 도운 '조작의 신'

KT ENS 50대 직원 구속

협력업체의 부당 대출을 도와준 혐의로 긴급 체포된 KT 자회사인 KT ENS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9일 협력업체가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위조해 허위 매출채권을 제공한 혐의로 KT ENS 직원 김모(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5월부터 최근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KT ENS에 납품하는 협력업체 6개사와 공모해 통신장비를 실제로 납품받지 않았으면서도 납품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2300억원을 대출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협력업체로부터 법인카드와 자랑 리스비 등 최소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혐의로 해당 협력업체 대표들을 조사하는 한편 출장 등으로 출국한 용의자에 대해선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한 상태다

/윤다혜 기자 yuh@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생철

'뿌리'의 저자 헤일리 사망

1992년 2월 10일 소설 '뿌리'와 '말콤X'의 저자 알렉스 헤일리가 급환으로 미국 시애틀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그는 흑인 목숨의 투사 말콤X의 자서전을 대필한 것이 계기가 되어 서부 아프리카 감비아의 한 마을에서 노예로 잡혀온 자신의 조상 쿤타킨테 이래 6대에 걸친 모계의 내력을 '뿌리'라는 소설로 완성했다. 이 작품으로 그는 퓰리처상을 받았고 '뿌리'는 동명의 TV 미니시리즈로 방영돼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다

오늘부터 이틀간 2014 서울형 뉴딜 일자리 박람회

청년·주부·어르신 '취업 한마당'

서울시가 10~11일 서울시청 신청사 1층에서 '2014 서울형뉴딜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시는 뉴딜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여성·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에게 24개 분야의 일자리 2000여 개를 제공한다.

뉴딜일자리는 상담·진로설계 지원·직업 역량 향상 교육 등을 통해 참여자들이 민간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박람회에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혁신활동가'·'사회적경제혁신활동가'·'청년마케터'·'청년인생설계인' 등을 비롯해 재택·단시간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보육반장'·'아동시설아동돌봄도우미' 등 다양한 일자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또 만 55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가할 수 있는 '경로당코디네이터'·외국인 주민이 참가할 수 있는 '외국인주민서울통신원'과 같은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에 대한 취업상담도 진행한다.

박람회 기간 중 매일 2회(오전 10시, 11시) 이틀간 총 4회에 걸쳐 신청사 3층 소회의실에서는 뉴딜일자리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 방법을 안내하는 사업설명회도 함께 진행된다.

24개 뉴딜일자리 사업의 모집과 선발은 2~4월 중이며 18세 이상 서울 거주 시민으로 실업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자는 기본적으로 신청 가능하다. 각 사업별 자격 요건과 모집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job.seoul.go.kr, 02-1588-9142) 또는 120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다혜기자 ydh@

'빠끔~' 언 땅 녹인 봄의 전령 봄의 전령사인 복수초가 9일 오전 서울 국립산림과학원 홍릉수목원에서 꽃망울 언 땅을 뚫고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복수초는 눈 속이나 얼음 사이에서도 꽃을 피워 설연화로도 불린다. /뉴시스

싱가포르 홀리는 블랙이글 에어쇼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B 9대로 구성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Black Eagles)이 대만 가오슝, 필리핀 세부, 브루나이를 거치는 5319km의 장거리 비행을 성공하고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안착했다. 9일(현지시간) 창이공항 옆 인근 바다 위 상공에서 열린 싱가포르 국제 에어쇼 미디어 공개 행사에서 블랙이글이 화려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블랙이글은 11~16일 에어쇼에 참가해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린다. /AP 뉴시스

분당선도 '스크린도어선'

올해 오리·태평·죽전 등 3개역 이어 2019년까지 모든 역 설치 완료

2019년까지 수도권 전철 분당선의 모든 역 승강장에 승객 안전시설인 스크린도어가 설치된다.

9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설사업본부에 따르면 분당선 왕십리~수원 전체 구간(총 연장 54.3km) 36개역 가운데 지난해까지 21개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했다.

공단 시설사업본부는 올해 296억원을 들여 오리·태평·죽전역 3곳을 보함해 모두 9곳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2017년에는 가천대·판티역, 2018년 수내역 등 2019년까지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끝낼 방침이다.

분당선은 ▲1994년 9월 오리~수서 구간을 시작으로 ▲2003년 9월 선릉~수서 ▲2007년 12월 오리~죽전 ▲2011년 12월 죽전~기흥 ▲2012년 10월과 12월 왕십리~선릉, 기흥~망포 구간이 차례로 개통됐다.

지난해 11월 망포~수원 개통으로 약 20년 만에 왕십리~수원 전 구간이 완전히 개통돼 운행되고 있다.

총 연장 54.3km에 ▲서울(18.5km, 13개 역) ▲성남(15.4km, 10개 역) ▲용인(11.5km, 6개 역) ▲수원(8.9km, 7개 역) 등 4개 지자체 36개 역을 거친다.

한편 성남시 분당구 일부 주민들은 "수내동 거주자 21만여 명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9.1%(9300여 명), 20세 미만자가 27.7%(5만6000여명)에 달해 수내역 이용시 사고위험이 적지 않다"며 거주지와 인접한 역에 스크린도어를 조기 설치해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대령이 성추행" 운전병 손배 패소

법원 "신빙성 없다" 판결

해병대 고위 간부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던 운전병이 이 간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법원은 9일 성추행을 당한 해병대 운전병 이모(26)씨와 그의 가족이 해병대 2사단 참모장 오모(51) 대령을 상대로 낸 1억9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작성했던 경위서 내용은 출입 기록·통화 기록과 같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 범행 장소에 도달하기까지의 거리와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이씨의 주장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0년 7월 9일 늦은 밤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시고 관사로 이동하던 해병대 2사단 참모장이던 오 대령으로부터 4차례 강제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오 대령은 1차례의 성추행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심은 적용 법조를 변경해 징역 1년9월을 선고받았다. /윤다혜기자

서울 아동돌봄도우미 모집

서울시는 14일까지 지역아동센터 아동돌봄도우미 221명과 아동공동생활가정 가사도우미 50명을 각각 모집한다.

도우미는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하며 급여는 75만원 수준이다. 시는 참여자의 거주지 근처로 근무지를 배치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메트로 아티스트 모집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17일까지 '2014 서울메트로 아티스트'를 모집한다. 특화된 지하철 예술 무대에서 정기적인 공연이 가능하고 공연음이 크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서울메트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공연 동영상을 첨부해 e메일(cailart@hanmail.net)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KHCU 평화봉사단원 선발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생 자치 봉사단체인 KHCU 평화봉사단은 오는 3~4월 27기 신입 단원을 선발, 봉사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KHCU 평화봉사단은 그동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일대일 멘토·멘티 봉사 ▲월드비젼 해외 결식아동 후원행사 진행 및 재능기부 등에 참여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일본 오미야게(토산품) 창작 패키지디자인전

패키지디자이너 100인이 전하는 일본의 포장이야기

일본 47개현의 토산품, 향토요리, 명소, 유적지, 전통행사 등을 소재로
독창적이면서도 신선한 형태의 패키지디자인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OMIYAGE
JAPAN

2014년 2월 14일(금) ~ 2월 23일(일)

오전10시 ~ 오후 6시(무료관람)

동대문디자인갤러리

주 최 :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일본패키지디자인협회 JPDA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KPa

후 원 : 서울디자인재단

전시문의 : 02-397-2820

하네다공항에 발 묶인 비행기들 9일 도쿄 하네다공항에 있는 비행기 동체에 눈이 수북이 쌓여 있다 /AFP·뉴시스

도쿄 마비시킨 '살인 폭설'

적설량 27cm…45년래 최대
강풍 겹쳐 수도권 5명 사망

일본 수도권에 살인적인 폭설이 내려 사망·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8일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일본 남쪽 해상에서 급속히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날 도쿄 도심에 1969년 이후 45년 만에 27cm가 넘는 적설량을 기록했다.

나가노현 마쓰모토시 49cm, 고후시 43cm, 후쿠시마시 44cm 등 8일부터 9일 새벽 사이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도호쿠 지역에는 9일 밤까지도 눈이 계속 내려 적설량이 50cm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폭설에 강풍까지 겹치며 인명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이시카와현과 나가노현 등에서 5명이 사망하고 전국적으로 628명이 부상했다.

교통도 마비 상태다. 하네다공항에서는 항공기 결항이 잇따르고 수도권의 일부 전철 운행이 한때 중단됐다. 도호쿠와 나가노 지역 신칸센 등 곳곳의 열차 운행이 중단되거나 연착됐고 각지에서 정전 피해도 잇따랐다. /차의성기자 lenlee@

관광코스된 '집안 동물원'

metro HongKong

미술가 꿈이던 환경미화원
호랑이·말 등 조형물 제작
대문·거실·옥상 등에 설치

중국 저장성 쉬아오시에 사는 정홍강(63)의 집은 동물원을 옮겨놓은 듯한 모습으로 인근에서 매우 유명하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그의 취미는 동물이나 인물의 조형물을 만드는 것이다. 배운 것도 없고 학교도 다닌 적 없지만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고 손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는 그는 2년 전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로 결심했다. 머릿속에서 상상만 했던 이미지들을 현실 세계로 옮겨오기 시작한 것.

정훙캉은 유년 시절 기억 속의 물소와 호랑이, 사자, 코끼리, 독수리, 말 등의 동물을 만들었고 서유기의 인물도 만들었다. 이렇게 제작한 조형물은 그의 집 대문 앞과 거실, 심지어 옥상에도 설치됐다. 실물 크기에 가깝게 제작된 조형물들은 마치 살아 숨 쉬는 듯하다. 그의 집은 '작은 동물원'으로 변했다.

제작 전에 그는 먼저 형태와 크기를 구상한다. 이후 철근으로 1차적인 형태를 만들고 시멘트를 바른다. 마지막으로 페인트 등을 이용해 각종 색상을 입힌다. 정훙캉은 30년간 트랙터를 몰았고 시멘트공도 해봤고 이웃들의 집수리도 자주 도왔다. 손으로 하는 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럽다.

그의 첫 작품은 적마였다. 서유기에 나오는 백마를 따라서 만들었다. 다른 동물들은 그의 상상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호랑이다. 스스로 제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훙캉의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조형물이 늘어가면서 그의 집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다.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이곳에 와서 감상하고 사진을 찍는다. 작품을 사겠다는 사람도 나왔다.

하지만 그는 "팔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솜씨를 보고 재미있어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사양했다. /정리=조선미기자

뇌물? 선물?…기업윤리 지침서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 임직원의 기업윤리 고민 해소에 나섰다.

전경련은 기업 임직원들이 매 순간 직면하지만 정답이 없는 '기업윤리 딜레마'를 상황별로 다루며 지침을 제시한 '궁금할 때 펴보는 기업윤리 Q&A 217'을 발간했다.

다양한 기업윤리 이슈 가운데 ▲근무 기강, 비윤리적 언행, 정보 보안 등 사내 윤리 ▲협조사 선물 뇌물 수수, 향응·접대 등 '협력사와의 윤리' ▲글로벌 윤리규범, 외부 강연, 내부 신고 등 이해관계자와의 윤리 파트로 나눠져 있다. 사내외 기업윤리 문제를 있음직한 사례 상황으로 쉬근하고, 현지 추세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100여 개 기업의 공개된 기업윤리 지침 등을 기초로, 이해하기 쉬도록 217개의 Q&A 문항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김태균기자

단속 비웃듯…이통 대리점 '꼼수' 판매 여전

'폰파라치제' 도입 1년

계도 시행 후 3000건 신고 "보다 강력한 처벌 이뤄져야"

스마트폰 판매 안정화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1월부터 실시한 '이동전화 파파라치(폰파라치)'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폰파라치 제도는 온라인상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을 넘을 경우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8월부터는 이를 하이마트, 리빙프라자, 전자랜드 등 대형 유통점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폰파라치 제도 신고 건수는 1년 새 3000건을 넘어섰다. 시행초기에 비해 신고 건수는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지급 주기와 비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동전화 대리점·판매점들이 파파라치제를 의식해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를 막고자 꼼수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점에선 더 이상 온라인 판매만을 고집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파파라치제로 인한 피해를 우려한 판매점들은 온라인상에서 보조금을 얼마 지급하겠다고 공지한 뒤 고객을 유지한 후 자신의 오프라인 판매점을 고객이 직접 내방해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뿐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혹시나 이뤄질 수 있는 폰파라치 신고에 대비, 민사소송 등의서 작성을 요구한다. 이 동의서는 고객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통한 것이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개통했으며, 만일 폰파라치 신고를 하면 민사소송 등 법적인 책임을 고객이 지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판매점은 법망을 피해 불법 보조금 지급을 통한 고객 유지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최근에는 최대 120만원 상당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삼성전자 '갤럭시S4 LTE-A'와 LG전자 'G2' 등 출고가 100만원 상당의 신형 단말기가 '마이너스폰'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렇다고 폰파라치제가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처럼 판매점 및 대형 유통점마저 꼼수를 마련할 정도로 효과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도 단순히 불법 보조금이 적발된 이동전화 대리점·판매점에 과징금뿐 아니라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시장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보조금 경쟁이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주말을 앞둔 7일부터 과열 양상을 띠기 시작하며 최신형 단말기가 '마이너스폰'으로 등장하기까지 했다. 사진은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 용대전화 매장의 모습. /연합뉴스

추락하는 비트코인

거래가격 50% 폭락 관련 앱 퇴출

세계 금융위기 이후 대안 통화로 주목받던 온라인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도쿄 마운틴곡스 거래 가격이 50%나 폭락했는가 하면 관련 애플리케이션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완전히 퇴출당했다.

9일 도쿄 마운틴곡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달러화 대비 가격은 641달러까지 추락했었다. 7일 850달러 부근에서 거래됐던 것에 비하면 25% 가까이 추락한 셈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한때 1200달러까지 치솟았던 가격은 두 달여 만에 반 토막났다.

이보다 앞서 7일(현지시간) 러시아 정부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도 비트코인이 합법적인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 사용의 모든 위험은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애플도 비트코인 안정성에 강한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애플은 지난 5일 마지막 남은 비트코인 지갑 앱인 '블록체인'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해버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애플이 모바일 전자결제시스템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비트코인을 견제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국명기자 kmlee@

"펀드슈퍼마켓 성공 안착 위해 독립자문업자 제도 도입해야"

오는 3월 출범하는 펀드슈퍼마켓과 함께 독립자문업자(IFA)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IFA가 실제 도입될 경우 보험사 독립법인대리점(GA)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IFA는 온라인 펀드 판매 채널인 '펀드온라인코리아'를 통해 가입하는 투자자들에게 독립투자자문업자가 개별 펀드에 관한 자문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펀드업계 관계자는 지난 7일 "IFA가 시행되면 주로 보험사 GA 등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보험사 전속은 아니지만 위탁 판매로 보험사의 주요 판매 채널로 자리 잡은 GA가 향후 온라인 펀드 자문업에도 진출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투자업계는 펀드슈퍼마켓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IFA 제도가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가입자가 사전에 충분한 투자 지식 없이 펀드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완전판매 측면에서 IFA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업계의 입장을 반영해 IFA 관련 독립성 요건과 인가 단위 내 집합투자상품 판매만을 자문하는 업무 단위 신설 등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IFA 제도 도입에 대해 실효성 관점에서 폭넓게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고 금융감독원 역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나온 단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IFA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제도다. 펀드슈퍼마켓과 상호 연계돼 온라인 펀드 판매 시장을 발달시켜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현정기자 hjkim1@

market index <7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1922.50 (+14.10)	514.45 (+4.58)	2.86 (-0.01)	1075.50 (-3.00)

뉴스 & 뉴스

장년층 창업 활성화 포럼 개최

● SK텔레콤은 장년층 창업 활성화 포럼 '브라보! 데이'를 11일 SKT 본사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SKT가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인 창업과 소통의 장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SKT는 지난해 5월부터 장년층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브라보! 리스타트' 1기를 운영했으며 현재는 2기 선발 심사를 진행 중이다.

포럼은 11일 오후 4시부터 3시간 동안 열리며 40~60대 창업 희망자 및 기창업자, 정보통신기술(ICT) 동향 및 창업에 관심 있는 성인이면 누구나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등록으로 참가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ICT 트렌드 특강, 창업 토크쇼, 성공 사례 공유 세션, 현장 멘토링 등으로 진행된다. /정윤희기자

예보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0일부터 예금보험공사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조회 대상 기관에 포함시킨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금감원과 은행 등의 접수 기관에 신청하면 금융업권회 등이 결과를 통보해주는 것이다.

그동안 예보는 파산 금융회사 등의 사망한 고객의 가족에게 예금 자산이 있는지 여부를 연 1회만 안내해왔다. 예보는 신청 후 약 3~10일내에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조회 결과를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접수기관 및 조회 대상 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상현기자

로또복권 제587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7	18	30	39	40	41	36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일치	5,733,183,250
2등	5개 숫자+2등 보너스 숫자	75,643,400
3등	5개 숫자일치	1,716,114
4등	4개 숫자일치	50,000
5등	3개 숫자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9-1551

발행인·대표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자센터	02)721-9871

2002년 5월 31일 창간 / 일간 서울특별시 가 00101

횡령과 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사들의 신뢰도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뉴시스

은행 내부 통제 강화된다

금융채 발행한도 폐지도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 통제가 강화되고 자본·유동성 관리방안이 개선된다. 또 금융채 발행 한도가 폐지되는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법적 근거를 마련해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예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은행이나 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전환되는 사채를 의미한다.

은행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의 규모를 고려할 때 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계 시각이다.

일반은행이 모두 비상장법인이며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점을 고려할 때 조건부자본증권의 원활한 발행을 위해서는 비상장법인의 발행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은행법상 금융사고 예방의 근거를 강화해 취약한 내부 통제와 일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결합돼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예방하는 한편, 금융사고 발생 시에는 엄중한 책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의 자본,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해서 실질적인 자본금 감소를 신고 사항에서 승인 사항으로 전환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고유동성 자산 확보 요구 근거를 명시할 예정이다. /이보람기자

금감원 "사모투자전문회사 지속적 성장세"

금융감독원은 2013년말 현재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모두 237사이며 총출자약정액 44조원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PEF 설립·운용 경험이 있는 운용자가 재설립하는 PEF 비중이 2009년을 저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투자자인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전문성에 기반, 운용자를 선택하기 시작한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대형 PEF는 모두 운용경험이 있는 운용자에 의해 재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된 신규자금 규모는 7조4000억원으로 안정적인 자금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2013년 PEF 제도도입 이후 최대 규모인 9조3000억원의 투자금액이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보람기자

상호금융 유가증권 종목별 운용한도 적용

정부는 상호금융사들의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업권별 맞춤형으로 하는 한편, 유가증권에 대해 종목별 운용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들과 상호금융 협의회는 지난 7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상호금융업권 전체 수신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고위험 자산 운용도 억제되고 있어 금감원이 선정한 공통지표와 업권별 개별지표를 기초로 상시 감시 및 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각 조합별로 위험 유가증권에 대해 종목별 운용 한도를 설정하고 유가증권 운용 총액 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내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보람기자

얼마됐다고 또 금융사고

삼성화재 보험설계사 고객 돈 가로채 잠적…금융사 신뢰 갈수록 떨어져

최근 은행, 저축은행, 카드, 보험 등 전 권역에 직원들의 횡령, 근무 기강 해이로 인한 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도쿄지점 직원의 횡령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삼성화재 설계사가 고객 돈을 가로채 잠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횡령 등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근무 기강도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최근 발생한 KT ENS 직원의 대출 사기건은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사고였다.

직전에 발생했던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의 경우도 개인정보 관련 근무지침만 제대로 수행 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인재라는 것이 금융권 안팎의 시각이다.

직원들의 횡령이나 대출사기에 대해 금융사들은 다소나마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수많은 직원들이 있고 사안이 발생하는데 일일이 들여다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계속해서 금전사고가 터지자 금융권의 신뢰는 계속 땅으로 곤두박질하고 있다. 이미 카드사태로 인해 금융회사들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상당히 낮아진 상태다.

최근 잇따른 대형 사고에 대해 금융권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내리고 있다.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또는 내부 감시 시스템 부재 등 문제점들을 지적한다.

금융업계에서는 가장 큰 원인으로 금융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근간인 정직, 신뢰, 믿음 같은 기본적인 정신이 무너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나친 경쟁 시스템 속에서 수익성, 효율성만 추구하다 보니 정작 갖춰야 할 덕목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의 관계자는 "금융사들의 최고경영자(CEO)들이 대부분 이런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다"며 "경영자로서 무엇인가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이 우선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경직된 경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래로 흘러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대출사기 사건을 계기로 향후 금융사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기관과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 조치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모니터링을 계속해 도덕적해이를 예방하고 근무 기강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박상억기자 sw85@metroseoul.co.kr

견본주택에 몰린 인파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큰 폭 증가하는 등 주택 시장을 가늠할 수 있는 몇몇 지표들이 개선되며 주택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9일 서울 금천구 롯데캐슬 골드파크 견본주택에 몰린 시민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사 주가상승? 글쎄올시다"

■교보증권 조주형 연구원

지난 6일 GS건설의 실적 발표를 마지막으로 상장사 기준 국내 빅 5 건설사의 작년 성적이 모두 공개됐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이 건설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았고, 비교적 선방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도 4분기 이익 감소는 피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간의 부실을 모두 털어내고 올해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마이너스 실적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은 크지 않은 상태다. 이를 반영하듯 대규모 손실 발표 이후에도 주요 건설사들의 주가는 강세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조주형(사진) 교보증권 연구원은 지난 7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선행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건설사들의 수익 하락은 지난해 이미 반영된 상태"라며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는 나아질게 분명하기 때문에 어닝 쇼크에도 강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실적 개선이 곧바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원은 "흑자 전환 후 창출되는 이익의 규모와 현재 주가 수준을 비교해 투자 가치가 있는 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며 "올해 실적이 개선되더라도 해당 건설사의 주가가 이미 높은 수준이라면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다미 건설사들이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실적 향상을 이룰지도 미지수다. 작년 건설사들의 적자 및 영업이익 감소의 원인은 해외와 국내 모두에 있었다.

조주형 연구원은 "최근 몇 년 사이 국내와 해외가 차례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작년에는 국내외 모두가 지뢰밭이었다"며 "올해 역시 국내 미착공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건설사를 위협하고 있으며 해외현장의 부실 요인도 100% 제거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박선옥기자 psok620@

하나 Free 〈자유여행만들기〉 항공 + 호텔에서

1. 손쉽게 한 번 검색으로
2. 항공과 호텔에 현지투어, 패스, 입장권까지 한꺼번에!
3.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하세요!

최저가 보상제

하나투어 항공+호텔의 자유여행만들기로 구매한 가격과 타사의 가격을 비교하여 차액발생시, 차액의 300%마일리지보상

최저가 가격비교 방법

하나투어 '항공+호텔'의 자유여행만들기로 항공과 호텔을 통한구매한 가격과 타사의 동일조건 상품 구매시 차액확인

※ 자세한 사항은 하나투어 홈페이지로 참조해주세요.

www.hanatourist.com

예약문의 |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1566-0223

IT 버블 악몽 재현되나

트위터 주가 하루만에 24% 폭락 · 9조4000억 허공에

2000년대 초 IT 버블이 재현되는 것일까.

지난 7일 트위터 주가가 하루 만에 24% 폭락하면서 무려 9조 4000억원이 허공에 날아가자 투자자와 IT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트위터가 이처럼 와르르 무너지면서 소셜네트워크(SNS) 기업을 포함한 IT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회의마저 들고 있다.

특히 트위터는 지난 4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2배가량 상승하는 등 여전히 현금 흐름이 좋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트위터가 투자자로부터 외면받은 가장 큰 이유는 불안한 미래 탓이다. 월간 사용자 수 증가율, 타임라인(메시지 창) 조회 수 감소에 발목을 잡혔다.

4분기 기준 사용자를 900만 명 늘린 트위터는 증가율에서 3.8%를 기록했다. 이는 3분기 대비 2.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타임라인 조회 수도 같은 기간 1590억 건에서 1480억 건으로 7.4% 줄었다.

SNS 대표 브랜드 페이스북, 링크드인, 그루폰 등도 초반 급등세→단기간의 주가 급락→완만한 상승세→주가 하락의 곡선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트위터가 새로운 사용자를 불러모으거나 광고가 아닌 수익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경쟁자가 많고 서비스가 중복되는 SNS 시장 특성상 추가 가입자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게 현실적인 과제다.

일단 트위터는 전자상거래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단문 메시지 서비스에 소셜커머스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할 가능성이 크다.

페이스북은 지난 4일 신문과 잡지를 결합한 새로운 뉴스 서비스 앱 '페이퍼'를 미국 시장에 출시하며 추가 사용자 모집에 나섰다.

취업 특화 SNS 링크드인은 기존 회원으로부터 수익을 얻기 위해 유료 결제 시 더 많은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병행하는 상황이다. /박상훈기자 [illegible]

<삼성가 상속분쟁 피소>

이맹희 화해안 내놨지만

삼성측 "진정성 의문…실망스럽다"

삼성가 상속 분쟁에서 패소한 이맹희(사진 왼쪽)씨 측이 이건희(오른쪽) 회장 측에 화해하자는 뜻을 밝혔다. 삼성 측은 그러나 이맹희씨 측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맹희씨 측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최근 "삼성이 전날 원고 측의 화해 제의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인 데 환영한다"며 "삼성이 제안한 화해를 위해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대화 창구나 방법 등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진심 어린 화해로 이 건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원고의 진정성은 여전히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건희 회장 측이 감소심 직후 "원고(이맹희) 측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가족 차원에서 화해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맹희씨 측이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맹희씨 측은 또 이번 재판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이씨 측은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제척기간 적용 등에 대한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특히 피고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원고가 미필적 인식하에 양해하거나 묵인했다는 판단은 아쉽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 측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 회장 측 변호사는 "최고 측 입장은 관련 전이니 관련 구니, 진정성이 확인되면 가족 간 화해는 언제든 가능하다.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가족 간 화해를 얘기하며 요란하게 언론을 통해 구체적인 대화 창구나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자고 하는 게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개인적으로는 실망스럽다"고 반박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소치 올림픽 개막식 '갤럭시 노트3' 물결 7일(현지시간) 러시아 피시트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선수단 입장 때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3'가 등장했다. 선수들은 스마트폰으로 개막식 장면과 동료 선수들의 모습을 촬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특히 선수들의 갤럭시 노트3는 각 나라의 국기를 형상화한 문양으로 화려하게 디자인된 후면 커버가 적용돼 개막식에서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했다. 사진은 미국 선수단의 모습. /삼성전자 제공

경력직 채용 '줄줄이'

직장인들이 솔깃할 만한 경력사원 채용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10일 오후 5시까지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채용 분야는 경영 기획, 재무 세무, 연구, 정보시스템 기획·관리, 정보보안 등이다. 분야별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취업보호 대상자는 우대한다.

SK C&C 엔카도 13일까지 종합기획본부, 인사총무팀의 경력사원을 뽑는다. 서류전형, 인성검사, 실무진 면접, 임원 면접, 채용검진의 5단계 전형을 거친 후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본아이에프 역시 '비전2025 경력직 공채 2기' 모집을 14일 오후 5시까지 진행한다. 모집 부문은 기획, 재무, 슈퍼바이저, 품질관리, 연구 개발(R&D), 사무 보조 등으로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 서류 전수, 실무진 면접, 임원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포스코엔지니어링도 상반기 경력직 모집에 나섰다. 설계 및 시공과 R&D기술연구원 등의 분야에 16일까지 지원할 수 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모바일로 신성장 동력 찾는 포털

Issue & View

/장윤희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포털 3사가 신성장 동력을 모바일 서비스의 해외 진출에서 찾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 다음은 홈스크린 공유 앱 '버즈런처', 네이트는 사진 보정 앱 '싸이메라'의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글로벌 모바일 앱 브랜드 '쏠'을 선보이기까지 했다.

이는 국내 포털 시장 포화와 PC 검색 매출 정체 등으로 모바일 수익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이 일찍 보편화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모바일 콘텐츠가 해외시장에서 큰 반응을 얻고 있다는 시장 분위기도 단적 요인이다.

모바일 콘텐츠 위력은 네이버의 최근 실적 발표에서 입증됐다. 라인은 단일 서비스임에도 네이버의 지난해 4분기 매출 6111억원 중 22%를 차지하는 1369억원의 매출을 보였다. 지난해 라인은 231개국에서 전 세계 이용자 3억 명을 돌파하며 전년 대비 매출 증가 232.2%란 고속 성장을 기록했다.

한편 다음과 네이트는 각각 버즈런처와 싸이메라에서 활로를 구하고 있다.

버즈런처는 30여 개국 14개 언어로 서비스되며 출시 6개월 만에 최근 400만 내려받기를 돌파했다. 싸이메라의 경우 출시 14개월 만에 지난해 전 세계 이용자 2000만 내려받기를 돌파했으며 이용률의 6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한다.

다음과 네이트의 이 같은 행보는 80%에 달하는 네이버의 시장 점유율을 뒤집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인했다. 지속되는 실적 부진도 신사업 개발을 부채질했다.

14일 실적 발표를 앞둔 다음의 지난해 4분기 예상 실적은 1300억원대로 네이버의 6000억원대 실적과 4배가량의 격차가 벌어졌다.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 275억원, 지난해 총 매출 1283억원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9분기 연속 적자다. SK컴즈는 싸이월드 분사와 네이트 점유율 하락으로 싸이메라에 사활을 걸었다.

업계 관계자는 "포털 검색에서 모바일 접속이 PC를 추월한 지 오래"라면서 "모바일 콘텐츠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태 탈모제·도희 비데 '의외의 CF' 뜬다

스타들 고정관념 깬 광고 선택…주얼리 예원은 속옷·GD는 女핸드백 모델로

올해 초 광고업계 모델 선정의 키워드로 '반전'이 떠오르고 있다.

20대 탈모제 모델, 아이돌 속옷 모델, 남자 핸드백 모델, 외국인 건강음료 모델 등 최근 기업들은 확 트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의 트렌드와 소비자에 맞춰 기존 상식의 틀을 깨는 모델 기용으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연말을 뜨겁게 달궜던 '응답하라 1994'(이하 '응사')의 손호준과 도희는 각각 탈모제와 비데 광고에 출연했다. 이처럼 최근 핫한 스타들은 기존 스타들이 선뜻 나서지 않았던 제품의 광고 모델로 적극 나서며 자신의 다양한 매력을 표출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런 반전이 있는 모델 선정을 통해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매출 증대 효과까지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현대약품의 먹는 탈모증 치료제인 마이녹실 S는 응사의 '해태' 손호준(사진 가운데)을 모델로 선정했다. 대부분의 탈모 관련 브랜드들은 주 고객층의 연령대와 비슷한 중년배우를 모델로 기용해왔다. 하지만 현대약품은 최근 여성 탈모 환자를 비롯해 20~30대 탈모 인구가 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젊은 남자 스타를 모델로 선정했다. 마이녹실 S 광고는 최근 뮤지컬 배우로도 활약 중인 손호준이 발랄한 댄스와 노래 실력을 선보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비데 브랜드 '이누스 비데'는 또 다른 응사의 스타 도희를 모델로 선택해 화제를 모았다. 광고에서 도희는 변기에 앉아 다양한 표정 연기를 능청스럽게 표현해 연기돌의 모습을 마음껏 뽐내 보였다.

언더웨어 브랜드 '예스(yes)'는 기존의 속옷 광고에서 잘 볼 수 없었던 아이돌 스타를 모델로 기용해 눈길을 끌었다. 대중에게 '육감돌'로 알려진 걸그룹 '주얼리'의 예원이 모델로 나선 광고 화보는 공개된 후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연일 오르는 등 주목을 받았다.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은 여성 핸드백 모델로 변신했다. 제이에스티나 핸드백은 '비욘드 아이콘(Beyond Icon)'이란 주제로 지드래곤과 함께 촬영한 광고 캠페인 화보를 지난달 공개했다. 지드래곤은 티아라 펜던트 체인백과 티아라 클러치 등 제이에스티나 핸드백의 2014년 봄·여름 라인을 자신만의 펑키한 스타일로 연출했다.

천호식품은 최근 MBC 예능 프로그램 '진짜사나이'의 스타 샘 해밍턴을 마늘 음료인 '마늘과학' 시리즈의 모델로 발탁했다. 지난달 공개된 TV 광고는 마늘의 효능을 강조하고 매운맛과 향을 줄여 외국인도 반한 맛있는 마늘을 보여주는 콘셉트로 활용됐다.

/정영일기자 pms@metroseoul.co.kr

유준상과 함께 한 '오레오 컬링 게임' 소치 동계올림픽이 시작된 가운데 동서식품은 지난 7~8일 서울 왕십리역 비트플렉스에서 자사 모델인 배우 유준상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오레오 컬링게임' 이벤트를 열었다. /동서식품 제공

술독에 빠진 초콜릿, 달콤한 데이

카카오 함량별 어울리는 주류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여자들의 움직임이 바쁘다. 정성 담긴 수제 초콜릿부터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을 선물까지. 더 달콤하고 특별한 날을 보내기 위해 분위기를 살려줄 주류는 빠질 수 없는 소품이다.

초콜릿은 재료에 따라 다크 초콜릿·밀크 초콜릿·화이트 초콜릿·견과류 초콜릿 등으로 나뉘며 종류에 따라 어울리는 주류도 제각각 다르다. 흔히 초콜릿과 어울리는 술로 와인을 생각하지만 카카오의 진한 향은 와인의 향을 죽이고 쓴맛은 타닌을 감추기 때문에 초콜릿 재료에 따라 달라지는 술과의 궁합이 중요하다.

◆다크 초콜릿은 배상면주가의 새콤달콤한 '산사춘'과 함께!

카카오 함유량이 제일 높은 다크 초콜릿은 달면서도 도수가 높은 주류와 가장 잘 어울린다. 배상면주가의 산사춘(사진)은 단맛과 새콤한 맛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고 은은하게 풍기는 과실 향과 연수정·자수정의 아름다운 빛깔이 특징인 라이스 와인이다. 또 건강에 좋은 산사나무 열매, 산수유로 빚어 숙취가 없고 부담스럽지 않게 분위기 내기에 추천한다.

◆밀크 초콜릿은 디아지오의 프리미엄 위스키 '조니워커'와 함께!

적정 수준의 카카오 함량과 우유 성분이 들어간 밀크 초콜릿은 설탕 함량에 따라 단맛이 강해져 도수가 높은 위스키와 제법 어울린다. 초콜릿의 단맛이 주류의 쓴맛을 부드럽게 눌러주기 때문이다. 조니워커는 부드러운 맛과 달콤한 향으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위스키다. 얼리면 점성이 생기면서 끈적하고 진한 위스키 원액이 돼 섬세하고 미묘한 과일 맛도 느낄 수 있다.

◆화이트 초콜릿은 카카오 향이 매력적인 '윔스 더블 초콜릿 스타우트'와 함께!

카카오가 들어가지 않고 카카오 버터로 만들어지는 화이트 초콜릿은 묵직한 흑맥주로 더 매력적인 맛을 느낄 수 있다. 윔스 더블 초콜릿 스타우트는 초콜릿 몰트로 인해 은은한 카카오와 커피 향이 코끝을 자극해 화이트 초콜릿과 더욱 잘 맞는다. 달콤하고 쌉쌀한 맛으로 묵직하면서도 그리 쓴맛이 나지 않아 초콜릿을 재료로 만든 디저트와 대부분 궁합이 잘 맞는다.

◆견과류 초콜릿은 개성 강한 벨기에 맥주 '스텔라 아르투아'와 함께!

고소한 견과류가 들어있어 단맛이 적은 견과류 초콜릿은 맛이 강하고 과일맛·쓴맛·매운맛·신맛 등 향이 깊고 다양한 벨기에 맥주와 잘 어울린다.

/정해질기자

여친 입맛 훔칠 '피파 리그'

<피자·파스타>

남친들! 로맨틱 데이트의 '양대 메뉴' 체크하세요

설레는 봄의 시작, 벌써 입춘(2월 4일)이 지났다. 추웠던 날씨가 풀리며 따스하고 포근한 봄날은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다. 그러나 데이트에 앞선 남자친구에게는 어디서 무엇을 먹을지 선택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다.

아무거나 먹자는 여자친구의 말에 정말 아무거나 먹었다가는 데이트를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자친구의 '아무거나'에 숨겨진 속뜻은 평소에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메뉴 중에서 맛도 있어야 하고, 인테리어와 분위기도 좋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 메뉴 가운데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의 '파스타'와 '피자'가 있다.

◆치즈와 토핑 따라 다른 피자 새콤·달콤한 메뉴로 女心 공략

남자들에게는 햄·채소·치즈·페퍼로니·올리브 등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간 콤비네이션 피자가 가장 익숙하다. 그러나 피자는 들어가는 치즈와 토핑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 그중에서도 고르곤졸라 피자와 마게리타 피자는 달콤·새콤한 맛으로 여자들에게 인기가 좋다. 이 피자는 세계 3대 블루치즈로 꼽히는 이탈리아의 대표적 치즈 고르곤졸라가 가미된 피자로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여기에 꿀을 곁들여 먹으면 고소한 맛에 달콤함이 더해져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이름도 어려운 '봉골레 스파게티'와 '파네' 남자친구의 센스 있는 주문 해내자!

최근 한 예능에서 배우 장현성이 만들기에 시도했다 난항을 겪었던 스파게티는 바로 봉골레가 들어간 '알리오 올리오'라는 메뉴였다. 봉골레는 조개를 뜻하는 이탈리아어다. 리미니의 봉골레 스파게티는 조개의 시원함과 마늘, 건고추, 최상급 올리브유로 진한 맛을 낸 스파게티로 매콤하면서도 담백해 여심을 사로잡는다.

또 대중적인 파스타가 아닌 '파네 파스타'(사진)는 오븐에서 갓 구운 둥그런 빵의 속을 파내고 그 안에 크림 스파게티를 넣어 만든 파스타로, 스파게티와 빵을 함께 즐길 수 있다. 특히 리미니 가든의 파네는 오븐 베이컨 또는 통통한 새우를 고를 수 있고, 순한맛과 매운맛의 선택도 가능해 취향과 입맛 모두를 고려했다.

이랜드 외식사업부 관계자는 "이탈리안 홈메이드 스타일의 레스토랑 '리미니 가든'의 경우 정통 이탈리아 화덕피자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직수입 식자재를 사용해 이탈리아 가정집에서 먹는 듯한 정성 가득한 스파게티를 선보이기 때문에 매장을 찾는 여성 고객들의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정해질기자

정몽구 "안전 예산 4배 늘려라"

현대제철 당진공장 점검

정몽구(사진)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7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불시 방문해 제철소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직접 점검했다.

정 회장은 이날 당진제철소 안전관리 체계를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점검하고 혁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안전관리 혁신안의 조속한 실행과 근본적인 안전의식 전환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또 안전 관련 투자예산 4배 증액 등 안전 예산과 전담 인력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정 회장은 "안전은 소중한 생명의 문제이며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의 기반으로 기업경영의 최우선 가치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중대 재해사고 재발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대제철은 자동차 소재 선은 제철소로서 자동차 강판과 특수강을 아우르는 차세대 자동차용 첨단 소재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현대·기아차와 현대제철은 미래 자동차 특성에 특화된 맞춤형 및 차세대 자동차 강판을 개발하는 시스템을 구축,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에서 유례없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정 회장의 이날 불시 점검은 당진제철소가 전면적인 쇄신을 통해 글로벌 철강사의 위상에 걸맞은 최고 수준의 안전한 산업 현장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은혜기자

<국산차 1월판매량 TOP10 중고차 시세> 단위:만원

제조사	차종	1월판매대수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현대	포터2	7,541	1,010	1,150	1,340	1,490
	아반떼	7,100	1,810	1,900	2,220	3,020
	그랜저	6,920		2,430	2,500	2,650
기아	모닝	6,235		890	900	980
현대	싼타페	5,154	1,240	1,210	1,390	1,530
	쏘나타	4,631	1,380	1,430	1,830	1,980
기아	봉고3	4,524	1,020	1,160	1,420	1,430
	스포티지R	3,388	1,830	1,900	2,040	2,170
쉐보레	스파크	3,336		790	730	930
현대	스타렉스	3,746	1,550	1,800	1,940	2,050

정보제공: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소리없이 강한 놈이 왔다

■ 그랜저 하이브리드

▲한 줄 평가: 정숙성과 연비가 기대 이상이다. 유럽 디젤차의 대안으로도 손색이 없다 ★★★★ (평점은 별 다섯 개 만점, ☆는 1/2)

ℓ당 16㎞ 달려… 정숙성 기본 운전 손맛까지

해마다 많은 신차가 쏟아져 나오지만 조용하고 안락하면서 경제성까지 뛰어난 차는 드물다. 대형차는 승차감이 좋지만 경제성이 낮고 소형차는 경제성이 좋은 대신 승차감이 떨어지는 게 대부분이다.

현대차가 지난해 12월 출시한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준대형차에서 취약한 경제성을 크게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외관은 기존 그랜저와 큰 차이가 없다. 새 디자인의 17인치 휠과 신규 색상인 이쿠아 마린 컬러가 추가된 정도다.

실내에서는 하이브리드 전용 클러스터와 전용 내비게이션 정도가 눈에 띈다. 계기판 가운데 마련된 TFT LCD 정보창에는 경제운전 수준을 알 수 있는 레벨과 운전 모드, 에너지 흐름도가 표시된다. 센터페시아에 달린 모니터에는 전기적인 연비와 가솔린 연비가 따로 표시되는 기능도 있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특징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카답게 출발은 조용하고 매끄럽다. 대략 시속 20㎞ 정도까지는 전기모터로 구동되고 그 이후에 엔진이 가동된다. 세 가지 드라이브 모드(에코, 노멀, 스포츠)는 각기 특성이 뚜렷하다. 에코 모드는 철저하게 경제성을 위주로 세팅돼 연비가 높게 나오는 반면 가속 페달에 대한 반응은 약간 늦다.

반면에 스포츠 모드는 가속 반응이 확실히 빠르게 나타나 운전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평상시에는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조합한 노멀 모드를 선택하는 게 무난하다.

엔진 최고 출력은 159마력이고 여기에 전기모터 35kW가 더해져 총 204마력의 최고 출력을 낸다.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비교하면 엔진 출력만 9마력 차이 날 뿐이지만 파워는 확실히 여유가 있다. 특히 쏘나타 하이브리드 초창기 모델은 모터 출력이 30kW에서 파워가 다소 부족한 느낌이었는데(지금은 35kW로 향상)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주행 중 전기모터가 가동되는 속도 구간은 비교적 넓다. 배터리 충전이 충분할 경우 시속 80㎞ 정도에서도 모터만으로 달릴 수 있고, 이때 연료가 크게 절약된다. 가솔린 모델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복합연비는 16.0㎞/ℓ인데, 시가지와 간선도로를 4대6 정도로 섞어 달린 이번 시승에서는 12.5㎞/ℓ를 기록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단순히 하이브리드 모델이 하나 추가된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고급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렉서스 하이브리드 모델과 본격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기본 가격은 3460만원. 렉서스 ES300h보다 연비는 약간 뒤지지만 옵션을 갖춰도 가격이 1600만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최근 인기 좋은 유럽 디젤차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진동과 소음 측면에서 특히 우월하기 때문이다. 렉서스 하이브리드 모델과 유럽 디젤차에 맞서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 주목된다. /임의택기자 ferrari@metroseoul.co.kr

푸조 2만대 돌파 '재구매 고객 감사 프로모션'

푸조(PEUGEOT)의 한국 공식 수입원인 한불모터스(대표이사 송승철)는 푸조 누적 판매 2만 대 돌파를 기념해 2월 한 달간 '재구매 고객 감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과거 푸조 차량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고객이 이번 프로모션 기간 동안 푸조 차량을 재구매하면 10만㎞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 쿠폰을 지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국내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푸조 전 차종이 대상이다.

푸조는 국내 수입차 시장 초기였던 1990년 판매를 시작했고, 2004년 최초로 디젤 세단을 국내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는 등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국내시장에서 총 2776대를 판매하며 2012년 대비 약 15%가량 성장했다. 지난달에는 국내 누적 판매 2만 대를 넘어서며 꾸준한 인기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불모터스 송승철 대표이사는 "연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연비는 역시 푸조'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고객들의 사랑과 관심에 보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진화하는 디스크 치료…수술 없이 간단하게 치료"

초기 및 중기 증상땐 도수 감압 운동 치료···말기 디스크 질환은 10분 정도의 고주파로 치료

30대 여자 회사원 B씨는 오랜 직장 생활로 허리가 뻐근하고 골반이 무거운 느낌을 받아 회사 근처 한의원과 정형외과, 또 교정하는 곳을 찾아 일자허리 및 골반 불균형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별다른 호전이 없고 최근 엉덩이 통증과 다리 당김이 심해지면서 보다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고자 유명 연예인들과 세계인들이 믿고 찾는 강남조이스병원 여의도점을 내원했다.

담당 주치의인 이승주 원장은 일자허리 및 골반 불균형이 오래돼 디스크 증상이 생겼다고 설명하며 요추 MRI상 제4~5 및 제5요추~제1천추 중기 추간판 탈출증으로 B씨의 상태를 진단했다. 진단 후 이 원장은 요추 신경치료 주사로 B씨를 치료했으며 B씨는 치료 후 척추도수운동재활센터에서 여러 유명 연예인들이 치료받았던 요추 도수·감압 운동치료를 일주일에 1~2회씩 3개월간 받았다. 치료를 마친 B씨는 통증 없이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

강남조이스병원 여의도점 이승주(왼쪽) 원장과 개그우먼 김민경 /병원 제공

◆환자의 근본적인 치료 필요

이처럼 시대가 발전하면서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증가해 만성 허리 통증 및 골반 통증, 일자목에 의한 두통이나 목 뻐근함, 만성 경추 통증 및 어깨 통증 등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보다는 증상의 일시적인 호전만 주는 침 치료, 추나 요법, 교정 치료, 약물 치료, 신경 성형술 등만 받아 허리 및 목 디스크 질환이 더 심각해지기도 한다.

척추관절 전문 치료병원으로 일려진 강남조이스병원 여의도점은 이런 실정을 고려해 내원 환자의 증상 및 질환에 따라 척추 전문의가 먼저 진료를 하고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환자의 질환·나이·증상에 따라 맞춤 치료를 실시한다. 특히 척추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4명이 환자 한 명을 전담하는 통합 진단-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치료를 체계화시켰다.

또 증상이 심하거나 말기 디스크 질환 환자일 경우에는 기존의 고주파 열 또는 수핵 감압술과는 다른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을 시행한다. 특수 내시경을 이용해 탈출된 추간판을 제자리로 밀어 넣는 시술로 시술이 짧고 간단해 당일 퇴원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강남조이스병원 여의도점은 손으로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해주면서 잘못 자리잡은 척추관절과 뼈를 바로잡고 눌린 신경의 압박을 감소시켜 통증을 없애주는 도수치료, 첨단 컴퓨터 장비를 이용한 무중력 감압치료, 약화된 관절 및 근육을 강화시키면서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운동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강남조이스병원은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본원 외에 여의도 및 홍대입구역에 목, 허리 및 어깨 통증 치료, 체형 교정(일자목, 골반 불균형, 휜다리, 측만증 등) 전문치료 클리닉 및 척추관절 비수술치료 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문의: 서울대 본원 02)875-2200, 홍대점 02)336-2200, 여의도점 02-766-2200 /황재용기자

이대병원 '무수혈 인공방광 수술' 사례 급증

작년 40건 '국내최고' 수준
수술시간 기존 절반으로
자기 소장 일부 잘라 생성
환자 삶의 질·만족도 향상

방광절제 수술 시 방광암 환자들에게 자신의 소장을 이용해 인공 방광을 만들어주는 '무수혈 인공방광 수술'이 각광받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은 병원 비뇨기과에서 시행한 인공방광 수술 실적을 집계한 결과 최근 들어 수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병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 동안 시행된 수술 건수는 모두 30건에 불과했지만 2011년 21건, 2012년 33건, 2013년 40건으로 근래 들어 수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원은 지난해 40건의 인공방광 수술이 국내 최고 수준으로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동현 이대목동병원 비뇨기과 교수가 8시간 이상 걸리던 인공방광 수술 시간을 반으로 줄인 데다 무수혈 수술로 수술을 진행해 70대 고령 환자는 물론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도 인공방광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동현 비뇨기과 교수의 수술 장면 이대목동병원 제공

이 교수는 "방광암 수술 후 소변 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방광을 적출하더라도 자신의 소장을 일부 잘라 내 인공방광을 만들면 환자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인공방광 수술은 자신의 소장으로 방광을 만들어 요관에 연결, 정상적으로 소변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방광절제 수술 후 소변 주머니를 차야 했던 예전의 방식에 비해 환자에게 장점이 많은 수술법이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겨울스포츠 살~살 타세요

스키·보드타다 부상 환자
연평균1만2000명 넘어서
빙상 즐길땐 고관절 조심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이 드디어 시작됐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동계올림픽인 만큼 올림픽 종목들인 스키와 스노보드, 스케이트도 겨울철 절정의 인기를 맞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겨울 스포츠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 장비 점검, 복장 체크에 만전을 기하지만 겉치장보다는 부상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자칫하면 단련되지 않은 근육과 관절로 인해 큰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활강하다 넘어지면 무릎 '픽'

스키와 스노보드는 속도를 즐기는 스포츠라 특히 무릎 부상을 주의해야 한다. 소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연평균 1만2669명이 스키 또는 보드를 타다가 부상을 당했다. 중요한 것은 그중 4249명이 무릎을 다쳤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부상의 위험을 잘 모르는 초보자는 활강 중 잘못 넘어지면 십자인대 파열을 당할 수 있다.

만약 스키나 보드를 타다 무릎에 통증이 나타나거나 불안정한 느낌이 든다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응급처치와 함께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피겨 여왕 김연아 열풍으로 스케이트를 즐기는 사람들도 늘었는데 스케이트는 각종 부상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스케이트의 무대는 단단한 얼음판으로 넘어지면 온몸이 성한 데 없이 멍드는 것은 물론 심한 경우 골절을 당할 수 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심하면 평생 누워 지내야만 하는 극단적인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초보자들은 사전에 엉덩이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 고관절에 통증이 계속되면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찾아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스케이트화가 잘 맞지 않거나 실수로 미끄러져 발목을 접질리는 경우도 있다. 발목관절을 지탱하는 인대들이 손상을 입게 되는 발목염좌가 발생하는 것으로 발목이 붓거나 통증이 동반된다. /황재용기자

보사연의 꼼수 여론조사

뉴스룸에서
정 영 일
<생활경제부 차장>

정부 출연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본연의 목적인 연구 조사에서 핵심이 되는 여론조사가 왜곡되도록 설문 문구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연구원은 지난 6일 최병호 원장이 직접 나서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전국 30대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2.5%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선호하며 72.4%가 기초연금 차등 지급 방식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문가 71.7%가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등을 이유로 정부안을 반대한다는 '배점연구원 조사 결과와 상반된' 중대 결과'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이 조사는 객관성을 잃고 정부의 입맛에 맞게 설문 내용을 변질시킨 것이다. 최고의 두뇌들이 모인 연구기관이 양심과 자존심을 버리고 '정부의 시녀'로 전락한 것이다.

연구원은 기초연금 정부안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매월 기초연금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의 안내와 질문을 누락시켰다. 정부안대로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덜 받게 돼 성실 납부자를 역차별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분히 고의성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또 설문 응답자의 답변이 편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조사의 기본마저 지키지 않았다. 총 7개의 설문 문항은 정부안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도록 짜여졌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구원의 이번 설문 문항 중 '국민연금 급여와 상관없이 2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한다면 세금을 더 거둬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이 포함됐다. 단순하게 차등 지급 찬반 여부만 물어보니 여유 있는 노인들에게는 돈을 적게 줘야 한다는 답연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연구원은 또 이번 설문조사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정부안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만을 부각시켜 사전 설명을 한 뒤 차등 지급 찬성 여부 등을 질문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일각에서는 보사연의 이번 여론조사가 국회 2월 임시 회기 중 정부 여당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는 7일 논평을 통해 "국책기관이 여론조사를 빙자해 여론 조작으로 국민들을 기만했다"며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조세 저항 키우는 '징세 폭군'

정론탁설
유 병 팔
<언론인>

박근혜 정부 들어 국세 행정이 세심스럽게 비판대에 오르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 기치를 내걸고 국세 행정이 대폭 강화된 가운데 조세 마찰이 심각한 수준으로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불황 속에 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판에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거둬들인 세금에 불복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의 과세 불복 건수가 무려 전년에 비해 31%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산하 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376곳이 불복해 전년의 1050곳보다 31%가 늘어났다. 특히 2010년 874곳, 2011년 875곳에 비해서도 월씬 많아졌다.

더욱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이의 신청, 심판 청구, 행정소송 등으로 납세자에게 되돌려준 세금이 이자를 합쳐 지난해 상반기에만 8121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는 전년 동기 3604억원이나 2011년 2306억원에 비해 2.2~3.5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세워 세수 확대에 열을 올리면서 추징 수위를 이례적으로 높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 바람에 기업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일반 납세자의 조세 저항도 만만치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정부가 세정 강화를 통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려고 하자 오히려 지하경제를 부추기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고액권인 5만원권의 회수율이 저조한 가운데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세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펼치는 일은 언제나 부작용이 따른다. 특히 경기 부진 속에 징세 강화는 오히려 경기 침체를 부추길 수도 있다.

국세청은 공평과세와 합리 세정을 근본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세정 지침에 적신호가 된다. 국세청은 국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정부의 이미지 메이커다. 따라서 국세 행정의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

국세 행정은 어디까지나 자진납세 풍토 조성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 그러자면 자영업자를 비롯해 음성 소득자에 대한 제도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물론 조세 포탈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납세자의 불복이 늘어나고 각종 심판이나 재판에서 패소하는 일이 많아지면 정부의 대국민 신뢰도가 곤바로 추락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포토프리즘 사라지는 아현고가…아쉬운 이별식

아현고가도로 철거를 하루 앞둔 8일 오후 시민들에게 개방된 아현고가도로 위에 미술집단 '어반스트리어커즈'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번 철거에 대해 "고가가 철거의 아쉬움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행사는 좋은 취지"라고 말하면서 "해외의 사례처럼 철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장소로 변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손진영기자 son@

미방위, 언제까지 놀건가

기자수첩
이 재 영
<경제산업부 기자>

1/4분기 2월 임시국회가 지난 3일 본격 시작됐다.

이번 임시국회는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오는 6월 열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대부분 연내 통과가 힘들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정보통신기술(ICT)진흥특별법'을 비롯해 9건(결의안 1건 포함)에 불과하다.

업계에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 등 민생법안들이 이미 때를 넘긴 상황에서 이번에도 처리되지 않을 경우 논의가 아예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는 국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미방위는 불량 상임위, 비상식 상임위, 일하지 않고 노는 정쟁상임위의 극치를 보여준다"며 "전체 330건 법안 중 ICT진흥특별법 통과 외에 법안 처리 실적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당시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 비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 같은 민생 법안 처리의 지지부진은 결국 국민 행복보다 좌절감을 안겨주고 말 것이다.

국민의 손으로 뽑힌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이들이다. 이젠 정쟁을 통해 당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ljy0403@

거리의 빛깔

인문학 산책
김 민 웅
<성공회대 교수>

좀 풀렸다고는 하지만, 도시를 관통하는 바람에는 겨울의 체온이 역력했다. 이만하면 행동반경이 움츠러들어 한산해질 법도 한데, 여전히 발 디딜 틈 없는 거리다. 밤 열한 시가 넘은 시각이다. 그러나 "이제 비로소 시작하려는 판인데?"라는 듯, 사실은 낮부터 쉬지 않고 계속 뛰는 이곳의 맥박이다. 지칠 사이가 없다.

평소의 속도대로 길을 걷는다는 것은 자칫 난폭한 몸짓이 되기 쉽상이다. 인파가 엇갈리며 만들어내는 빈 공간을 눈치껏 찾아 빠르게 유영하듯 움직이는 작은 물고기가 되어본다. 뉴욕 맨해튼 42가에서 50가에 이르는 브로드웨이는 그 순간 출렁이는 거대한 어장이 된다. 사방에는 초대형 영상들이 기다란 휘장처럼 즐비하게 에워싸고 현란하게 변환하는 시네마스코프를 펼쳐낸다.

이 거리는 대체 어떤 곳인가? '극장'이라고 하면 우리는 영화를 보는 상영관을 떠올리지만, 여기서는 뮤지컬과 연극이 무대에 오르는 장소다. 브로드웨이의 역사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전기(傳記)를 즐기차게 써왔다.

깔끔 존의 노래로도 유명한 뮤지컬 '라이언 킹'은 1997년 이래 현재까지 최장기 공연을 하고 있고, 1987년 영국의 웨스트엔드 공연과 함께 시작됐던 '레 미제라블'은 막을 내렸다가 다시 올해 3월 새로운 모습으로 관객을 맞이하게 된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오페라의 유령'·'시카고' 등만이 아니라 더는 볼 수 없어 아쉬움을 주는 '에리 포핀스', '고스트'나 새로이 무대에 선을 보이는 '알라딘'도 모두 브로드웨이의 자산이다. 흑인 여가수 캐럴 킹 이야기를 극화한 연극 '태양 아래 건포도'에 영화배우 덴젤 워싱턴이 등장해서 화제가 되고 있으며, 셰익스피어의 희곡도 「리처드 3세」를 비롯해서 몇 개나 공연 중이다.

고대와 중세는 없지만 현대 문화의 중심을 만들어온 이 나라는 이렇게 TV 화면이나 디지털의 공간이 아니라, 배우와 관객이 서로 마주 보고 호흡하는 아날로그의 무대를 통해 대중 예술의 거리를 가꿔 오고 있다. 그리고 그 인생살이 애환과 환희를 나눌 자리를 펼쳐낸다. 브로드웨이의 인파가 모두 극장에서 쏟아져나온 것은 물론 아니지만, 이곳에 맑은 공기처럼 넘쳐나는 활력은 이와 무관할 수 없다.

서울의 어떤 거리를 거닐면 우리는 공연예술에 흠뻑 취하고 자기도 모르게 들뜨고 사람의 물결 속에서 기운이 상쾌해질 수 있는 걸까? 그곳에 가고 싶다.

속 보이는 男, 멋 보이네

올봄·여름 남성복 트렌드

블루 컬러 열풍 전해지고 시스루 '여성 전유' 탈피 스포티즘 '리얼웨어' 진화

올봄·여름 남성복 트렌드는 하나로 요약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스타일이 혼재하고 있다. 먼저 '블루 컬러'에 꽂혔다. 지난해부터 불던 블루 바람이 2014년 봄·여름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더불어 여성복에서나 볼 수 있었던 시스루 소재 셔츠의 등장으로 남성과 여성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편안함만 강조되던 스포티즘은 일상에서도 소화할 수 있는 '리얼웨어'로 진화했다.

◆다양한 블루 컬러의 향연

금봄 런웨이는 은은한 스카이블루부터 강렬한 트루블루까지 다양한 '블루 컬러'가 점령했다. 셔츠, 슈트, 팬츠는 물론 벨트까지 파랗게 물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발반 클라인 컬렉션은 스포티즘이 녹아있는 편안한 셔츠부터 클래식한 슈트, 심지어 슈즈까지 블루 컬러로 선보였다. 특히 바다와 하늘이 그려진 스웨트 셔츠는 여름의 파라다이스를 연상케 한다.

엠포리오 아르마니는 은은한 광택이 더해진 네크노종의 블루 셔츠에 네이비 팬츠를 매치해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룩을 완성했다.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톤다운된 블루 컬러 슈트는 부드럽고 편안한 남자로 변신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당당하게 속 보이는 남성복

이번 시즌 여성복의 단골 소재인 시스루 시어 소재 등 속이 비치는 소재가 남성복에 전격 투입됐다. 일명 '망사옷'이 남성 셔츠와 재킷, 슈트로 재탄생한 것. 자칫 부담스러울 수는 있으나 스타일링은 그리 어렵지 않다. 엠포리오 아르마니 관계자는 "구멍이 숭숭 뚫린 검정색 테일러드 재킷에 흰색의 시스루 이너를 매치하면 경쾌함을, 깔끔한 화이트 셔츠를 입으면 클래식한 멋과 함께 망사의 매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종 마틴 마르지엘라는 시어 소재의 라운드 룩을 선보이고, 이너·팬츠 모두 화이트로 매치한 뒤 그린 컬러의 스카프를 곁들여 감각적인 스타일을 완성했다. 릭오웬스는 몸매를 그대로 드러내는 메시 소재의 튜닉으로 경쾌함을 전달했다.

◆도시적인 스포티즘 강세

활동성만 강조됐던 스포티즘은 한결 도시적이고 고급스러워졌다.

준지는 스웨트 셔츠와 트레이닝 팬츠 등을 메인 아이템으로 내세웠다. 특히 안켓 부클란 소매의 스웨트 셔츠에 쇼츠를 매치해 여성과 남성의 경계를 허무는 신개념의 스포티즘을 표현했다. 겐조 역시 버뮤다 팬츠(무릎 위까지 오는 반바지)로 스포티즘을 보여준 가운데 그래픽 셔츠를 코디해 경쾌함을 더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수지의 첫사랑 세일' 쏜다

더페이스샵 10일부터 일주일 최대 50% 할인

자연주의 화장품 더페이스샵은 10일부터 7일간 '수지의 첫사랑 세일'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16일까지 더페이스샵 전국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구매 고객에게 품목별로 20~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겨울철 필수 아이템인 아이크림과 보디 전 품목, 베스트셀러 망고씨드 하트볼륨 버터, 남성 베스트셀러 네오클래식 블랙 라인 등에 50%의 높은 할인율을 적용했다.

특히 톤업 피부결·수분감·탄력·윤기 등 5가지 맑은 피부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피부 속 맑은 씨눈 에센스'는 30% 할인하고, 제품 구매 시 지정 기간 내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할인 쿠폰을 추가로 제공한다. 씨눈 에센스는 씨눈의 효능 성분을 함유한 미백 및 주름개선의 2중 기능성 제품으로, 주 성분인 씨눈은 씨앗과 새싹일 때 사포닌·이소플라본 등을 200% 이상 함유해 씨앗 속의 영양 주머니로 불린다.

또한 올 초 선보인 '쿠션 스크린실'도 30% 저렴하게 판매하고, 9000원 상당 [illegible] 증정한다. 주름개선·미백·자외선 차단의 3중 기능성 쿠션 파운데이션인 '쿠션 스크린실'은 촉촉한 피부결과 매끈하게 빛나는 피부로 표현해준다.

제품에 적용된 '스크린셀'은 0.028mm 크기의 미세한 셀로 이뤄진 필터로 피부에 균일하게 도포돼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직접 바른 듯 매끈한 피부결을 연출해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자기야, 셔츠 2벌값에 3벌 건졌어!

예잇세컨즈 2+1 이벤트 등 패션업계 밸런타인 마케팅

패션 브랜드들이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과 선물을 판매한다.

SPA 브랜드 에잇세컨즈는 16일까지 '밸런타인데이 2+1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남성 셔츠와 스트라이프 티셔츠로 구성된 밸런타인데이 상품 2개를 사면 스트라이프 티셔츠 하나를 추가로 준다. 남성복 브랜드 갤러시는 악어 엠보 반지갑과 같은 소개의 벨트로 구성된 선물용 남성 액세서리를 선보인다.

콘셉트 스토어 '10 꼬르소 꼬모 서울'은 미국 출신의 아티스트 크리스 무스의 아트 일러스트로 장식된 상자에 발로나 초콜릿 등을 담은 초콜릿 박스(5만3000원)를 300개 한정으로 내놓는다. 멀티숍 브랜드 비이커는 수제 초콜릿(3만8000원)을 판매한다. '솔트 인 페퍼 초콜릿'은 최고급 그랑크루 초콜릿에 한국 전통 수제 천일염과 양질의 후추를 첨가해 깊은 맛을 강조했다. '시나몬 앤 스파이시'는 강렬한 맛의 아프리카 초콜릿에 계피향과 칠리 향료를 첨가했다.

/박지원기자

광채 피부가 은은해진다

올봄·여름 메이크업 트렌드 입술도 살구색으로 여성미

메이크업 브랜드 맥이 '2014 봄·여름 메이크업 트렌드'를 발표했다.

맥은 이번 시즌 과거 유행했던 '강렬함', '중성적인 아름다움' 등이 자취를 감추고 은은하고 고상한 여성스러움이 유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를 표현할 메이크업 컬러로는 연보라색과 살구색을 꼽았다.

변명숙 맥 수석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올봄 메이크업 키워드는 현실감 있는 광채"라며 "인위적인 광채 대신 마치 본연의 피부에서 빛이 나듯 반짝이는 피부톤에 부드러운 파스텔 컬러로 빛을 더하라"고 설명했다.

자연스럽게 빛나는 피부를 위해서는 크림 타입이나 펄감이 있는 제품을 활용하되, 입술은 지나치게 강렬한 색상보다는 살구색으로 은은하게 물들인다. 아이라인 역시 자분한 톤을 유지해야 하는데, 검정색 아이라이너로 눈꼬리를 살짝 빼주는 정도면 충분하다. 이때 속눈썹은 최대한 풍성하게 연출한다.

이와 함께 연보라색 입술과 화이트 아이 메이크업으로 청순미를 강조한 화장도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서 연보라색은 푸른색이 감도는 차가운 느낌의 핑크를 말한다. 연보라색을 사용할 때는 먼저 피부를 화사하게 연출한 뒤 컨실러로 입술톤을 정리한다. 그리고 그 위에 연보라색 립스틱을 두드리듯 바르며 채운다.

눈 화장은 화이트 컬러의 아이섀도로 눈두덩을 바른 뒤 펄감이 있는 제품으로 부피감을 강조하면 된다.

/박지원기자

그랜드 힐튼서 로맨틱한 '와인 디너'

14일 밸런타인데이 단 하루 코스요리+라이브 연주 선사

그랜드 힐튼 서울은 오는 14일 단 하루 동안 데이트리움 카페에서 '밸런타인데이 와인 디너 코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소중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계획하는 커플에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스 메뉴로는 ▲전복 샐러드 ▲가리비 수프 ▲레몬 리소토 위에 얹은 넙치 필레 구이 ▲안라봉 셔벗 ▲제주 흑돼지 필레 미뇽 등이 준비된다. 특히 제주 흑돼지 필레 미뇽은 영양소 파괴 없이 재료 본연의 맛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수 비드 조리법으로 요리된다.

또 디저트로 녹차 스폰지 케이크, 커피 또는 차, 그리고 여성들에게 최고의 디저트로 칭송되는 마카롱이 준비되며 펜폴즈 프라이빗 릴리즈 샤도네와 펜폴즈 프라이빗 릴리즈 쉬라즈가 잔으로 무제한 제공돼 특급호텔 코스 메뉴의 품격을 높인다.

이와 함께 밸런타인데이 만찬을 즐기는 동안 로맨틱 무드를 더욱 돋울 라이브 연주가 이어질 예정이다.

가격은 11만원(세금 및 봉사료 포함)이며 오는 5일까지 사전 예약할 경우에는 15%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문의 02)2287-8270

/황재용기자

피케 티셔츠·치노 팬츠…'봄' 입자

홈플러스 전국 매장서 9일 봄 신상의류 출시

홈플러스는 9일 전국 139개 매장에서 2014년 봄 시즌 신상 의류를 선보였다.

플로렌스&프레드는 소프트 티셔츠, 피케 티셔츠, 치노팬츠, 컬러 스트레치 레깅스 등 다양한 스타일의 봄 신상 의류를 출시했다.

2014년 봄 신상 의류의 특징은 '컬러를 스프링'으로 50여 가지의 세련된 컬러를 중심으로 활동성이 좋은 것이 장점으로 우수한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주요 상품으로는 라운드 티셔츠 7900원, 피케 티셔츠 9900원, 치노팬츠 1만5900원, 컬러스트레치 레깅스 1만2900원 등 캐주얼 의류를 비롯해 스마트 셔츠 1만9900원, 청장 스커트 1만5900원, 브이넥 카디건 1만9900원, 야상점퍼 4만9000원 등이다.

오는 19일까지 홈플러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으면 남녀 아동 봄 신상 트렌디 데님 상품에 한해 5000원 할인해준다.

박진 홈플러스 패션마케팅팀 관계자는 "플로렌스&프레드가 준비한 2014 봄 신상 의류는 세련된 컬러는 물론 비즈니스룩부터 스포티 캐주얼까지 다양하게 코디가 가능한 실용성, 여기에 합리적인 가격까지 삼박자를 고루 갖췄다"고 설명했다. /장병철기자

졸업·입학증 들고 호텔로

그랜드 엠배서더·메이필드 등 특급호텔들 식사 무료 제공 이벤트

특급호텔들이 졸업·입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다. 졸업 및 입학증서를 제시하면 50% 할인은 물론 무료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출발 새 출발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를 알차게 마련할 수 있다.

우선 그랜드 엠배서더 서울은 프리미엄 라이브 뷔페 더 킹스에서는 다음달 9일까지 졸업생과 입학생을 위한 축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해당 기간 동안 졸업생 또는 입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가지고 오면 4인 이상 방문 시 졸업·입학생에게는 무료로 식사가 제공된다.

메이필드 호텔에서는 2월 한 달간 가족을 동반한 졸업생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는 수준 프로모션 '졸업생을 무료로 초대합니다'가 이어지며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의 뷔페 레스토랑 브레서리에서는 졸업과 입학을 축하하는 의미의 '뉴 스타트' 프로모션이 다음달 9일까지 진행된다.

또 그랜드 힐튼 서울은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전체 레스토랑에서 동서양을 망라하는 다양한 메뉴의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3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4인 이상 가족 동반 고객에게 졸업생이나 입학생 한 명의 식사가 무료로 제공되며 3인 이하 동반 시에는 졸업생이나 입학생 한 명에게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즉석 사진과 축하 케이크 50% 할인 쿠폰도 받을 수 있다.

드래곤스 서울 호텔은 본격적인 입학 및 졸업 기간을 맞아 졸업자 또는 입학자 본인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특별 레스토랑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하얏트 리젠시 인천의 레스토랑 8 덕시 3월 말까지 졸업장 및 입학 증명서를 소지한 고객에게 레스토랑 8의 뷔페 메뉴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벌인다.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머큐어 앰배서더 강남 쏘도베 호텔의 쏘도베 뷔페 레스토랑은 졸업생 또는 입학생을 동반한 3인 이상 가족에게 1인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와 함께 졸업 및 입학을 기념할 수 있도록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도 졸업·입학생을 위한 프로모션을 준비했으며 롯데호텔서울은 2월 한 달간 '뉴 스타트(New Start)' 패키지와 뷔페 레스토랑 라세느와 이탈리안 레스토랑 페닌슐라에서의 졸업·입학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신발 할인받고 경품 행운 잡고

ABC마트, 학생증·사원증 지참시 10% 저렴한 혜택

ABC마트는 다음달 2일까지 '신학기 신상품 대전'을 연다고 9일 밝혔다.

학생증을 제시하는 고객에게 10% 할인 혜택을 준다. 호킨스 장까를로모렐리 스테파노로시 등 비즈니스화를 구매하고 사원증 또는 명함을 제시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추가로 10% 할인해준다.

멤버십 경품 프로모션으로 풍성한 혜택을 더했다.

행사 기간 ABC마트 멤버십에 가입하거나 멤버십 포인트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가입만 해도 ABC마트 1만원 할인 쿠폰을 발급해준다.

이벤트 응모자 중 추첨을 실시해 1등 삼성 노트북(3명), 2등 아이패드 미니(10명), 3등 ABC마트 상품권 5만원(100명), 4등 문화상품권 1만원(200명)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박지원기자

'가을 윤달' 전 봄 웨딩 특수

올해는 가을에 윤달(10월 24일~11월 21일·양력 기준)이 끼어있어 벌써부터 봄 웨딩 관련 상품의 매출이 증가하는 등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아이파크백화점에 따르면 이 곳의 가구 매출은 올해 들어 지난해 같은 기간(1월 1일~2월 8일까지)에 비해 35.8%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이파크백화점 한희권 리빙문화팀장은 "윤달을 앞둔 시기에는 결혼 커플이 몰려 가구 매출이 20~30% 급등하는 현상을 보인다"며 "올 가을 윤달이 들어섬에 따라 유통업체의 판촉전이 벌써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키리조트들 "대~한민국!" 응원 열전

댓글 달면 숙박권 증정 금메달 획득시 할인도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이 시작되면서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마음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국내 리조트들도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고객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응원 댓글부터 리프트 할인권까지~

먼저 비발디파크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한국 선수단 응원 댓글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오는 23일까지 비발디파크 홈페이지에서 한국 선수단을 응원하는 댓글을 달고 스키월드 3000원 중복할인권을 출력하면 추첨을 통해 ▲엠블호텔 킨텍스 무료 숙박권(10명) ▲엠블호텔 여수 무료 숙박권(10명) ▲소노 골프&리조트 무료 숙박권(10명) ▲비발디파크 주중 무료 숙박권(7명) ▲오션월드 입장 교환권(5명) ▲리프트 무료 교환권(10명) 등 다양한 경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24일. 스키월드 중복 할인권 사용 기간은 23일까지이며 스키월드에서는 올림픽 기간인 23일까지 리프트와 렌탈 특가 이벤트도 이어진다.

강원도 평창의 알펜시아도 올림픽 기간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알펜시아의 인터컨티넨탈 호텔은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한 날 라운지에 있는 전 고객에게 시원한 생맥주 1잔을 무료로 제공하며 해당 기간에 로비 라운지 이용을 사전 예약하면 전 메뉴를 10% 할인받을 수도 있어 방문 계획이 있다면 예약은 필수다.

또 러시아의 대표적인 술인 보드카를 주재료로 한 칵테일 3종(블랙 러시안, 키스 오브 파이어, 지지)을 할인된 가격인 8000원에 선보이며 앱솔루트·스미노프·스톨리치나야 등 국내에서도 꾸준히 사랑받는 보드카들을 20% 할인된 가격으로도 구매할 수 있다.

알펜시아에서는 올림픽 주요 종목의 이름을 딴 패키지도 출시했다. 스키점프, 스노우보드, '알파인스키'로 각각 이름 붙여진 동계올림픽 패키지 3종은 23일까지 만나볼 수 있으며 스키점프에는 알펜시아 스키점프대 K-98 전망대 체험이, 스노우보드에는 리프트권(반일권 2매)과 렌탈(반일권 2매)권이, 알파인스키에서는 리프트권(반일권 2매)과 조식(2인)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용평리조트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메달을 획득 시 당일에 한해 리프트권을 40%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호텔 살레&도라지에서는 금메달 획득 다음날 하이네켄 생맥주(500cc)를 주문하면 한 잔을 더 제공하는 '1+1'을 통해 고객들과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한다.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슬로프 베이스에서 현대자동차와 함께 4W 시승식 및 푸짐한 경품 이벤트도 이어진다. /황재용기자

"1인 2역 액션연기… 이거다 싶었다"

드라마 '처용'서 중성 매력 발산

귀엽고 섹시한 매력이 한국인 배우 오지은(34)이 기존의 이성적인 이미지를 벗고 중성적인 매력으로 돌아왔다.

케이블 채널 OCN의 10부작 드라마 '처용'을 통해 데뷔 후 첫 여형사 역을 맡았다. 형사 하선우 역을 실감 나게 연기하기 위해 단발로 헤어스타일도 과감하게 변신했다. 또 극중 1인 2역을 소화하며 거칠었던 액션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 '처용' 연기 변신의 교두보

2006년 SBS 드라마 '불량가족'으로 데뷔한 오지은은 2010년 수상한 삼형제' '웃어라 동해야'로 KBS 연기대상 여자 신인상을 받았다. 이후 다양한 작품을 통해 배우로서 자신만의 연기 영역과 존재감으로 입지를 다져왔다. 하지만 그는 만족하지 못했다. '처용'을 선택한 이유도 그런 맥락에서였다.

"그동안 드라마 출연이 많았는데 배우로서 영역을 넓히기 위해 영화 출연을 고민하던 중 사전제작 드라마 '처용'이 눈에 들어왔죠. 여기에 판잡 원혼을 소재로 한 미드(미국 드라마)에 심취했는데 대본을 받아 '운명이구나' 싶더라고요. 또 1인 2역과 털털하고 어두운 형사 역에 매력을 느꼈죠. 배우로서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단발머리 '질끈' 노메이크업으로
여형사·고교생 귀신 캐릭터 열연
배우 스펙트럼 넓힐 기회 잡았죠
촬영때 너무 뛰어다녀 피멍 들어
:
결혼이요? 아직 일이 더 좋아요
"

◆ 낯설지만 애착 가는 작품

오지은에게 '처용'은 여러 가지로 낯선 작품이다. 의상과 외모는 물론 제작 방식 또한 달랐다. 기존 드라마와 달리 사전 제작으로 진행됐다. 특히 촬영 방법도 기존 드라마와 달랐다.

"드라마 '처용'은 미리 촬영을 마쳐놓고 방송된다는 점에서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어려웠어요. 일반 드라마는 시청자의 반응을 체크해 연기에 반영을 하는데 사전 제작 드라마는 시청자의 반응을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편집 과정을 알 수 없어 감독님만 믿고 촬영에 임했죠. 특히 카메라의 위치와 촬영 방법에서도 낯설었어요. 원혼의 대사와 겹치면 안 되니까 효심이의 대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타이밍을 잘 맞춰 연기를 해야 됐어요. 또 원혼 역할의 배우를 옆에 두고도 없는 듯 연기해야 하는데 무의식 중에 자꾸 쳐다보고 반응하는 바람에 초반에 NG도 많이 났어요."

그는 형사 역을 실감 나게 연기하기 위해 머리카락을 짧게 잘랐다. 의상이나 메이크업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며 이번 역할에 애착을 드러냈다.

그는 "형사라는 점을 표현하기 위해 화려한 의상보다 한 가지 의상만으로 촬영을 진행했고 어둡게 보이기 위해 메이크업도 거의 하지 않았다"며 "첫 회 촬영에서는 바무 종일 뛰어다녀서 발톱이 빠지고 피멍이 들고 물집까지 생겼다"고 설명했다.

◆ "그림 그리며 일상 즐기고파"

올해 서른네 살로 결혼에 관심을 가질 만하지만 그는 올해 목표를 '자기 계발'로 잡았다. 데뷔 후 끊임없이 작품 활동에 전념해온 그는 "나를 돌아볼 시간이 부족했고 나를 돌보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다"며 "연기하지 않는 시간에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 그림 그리기만 한 것이 없더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다양한 작품을 경험하고 경력을 쌓았던 기간이라면 올해는 진정성 있는 연기로 오지은의 진가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층 더 성숙한, 깊이 있는 배우 오지은의 다음 작품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김하늘기자 kmoon0416@metroseoul.co.kr

사진/이동희기자 디자인/이은지

화려하고 진지한 드라마 전쟁… 뭘 보지?

호화 캐스팅 '참 좋은 시절' 등 신작 이달 중순 넘어 속속 방송

소치 동계올림픽 중계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각 방송사가 대회가 끝난 후 그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화제의 신작을 속속 선보일 예정이다.

KBS는 대회 막바지인 22일 김희선·이서진 주연의 KBS2 새 주말극 '참 좋은 시절'을 '왕가네 식구들' 후속으로 내보낸다.

시청률 40%를 넘은 전작의 바통을 잇는 데다 주말극에선 좀처럼 보기 어려운 화려한 캐스팅이 돋보여 높은 기대를 모으는 작품이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 '고맙습니다' '이 죽일 놈의 사랑' '미안하다 사랑한다' 등 특유의 감성적인 필체로 사랑받아온 이경희 작가의 14년 만의 주말극 복귀작이기도 하다.

가난한 소년이었던 한 남자가 검사로 성공한 뒤 15년 만에 떠나왔던 고향에 돌아와 벌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짚어 본다는 내용이다. 2PM 옥택연도 이서진의 동생으로 출연한다.

'참 좋은 시절'의 김희선

'쓰리 데이즈'의 박유천·손현주(왼쪽)

'앙큼한 돌싱녀'의 이민정.

SBS는 JYJ 박유천 주연의 새 수목극 '쓰리 데이즈'를 다음달 초 첫 방영해 김수현·전지현 주연의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의 인기를 잇겠다는 계획이다. 원래 방영일은 26일이었으나 '별그대'가 설 연휴에 한 회 결방되면서 종영이 한 주 늦어지자 첫 방영일이 뒤로 밀렸다.

'싸인'과 '유령'을 연이어 성공시킨 김은희 작가와 '뿌리깊은 나무'를 연출한 신경수 PD가 의기투합해 선보이는 장르물이다. 세 발의 총성과 함께 실종된 대통령을 지키려는 경호원의 활약을 그린다. 박유천이 대통령 경호관 역을, 손현주가 대통령 역을 맡아 연기 호흡을 맞춘다.

MBC는 수목극 '미스코리아' 후속인 이민정 주연의 '앙큼한 돌싱녀'로 승부를 건다.

올림픽이 끝난 직후인 26일 첫 방영될 이 작품은 이병헌의 아내가 된 이민정의 결혼 후 첫 복귀작이다. 재혼한 전남편과 전처가 다시 만나게 되면서 진정한 사랑에 대해 깨닫게 되는 로맨틱코미디로 '내조의 여왕'을 연출한 고동선 PD가 메가폰을 잡았다.

결혼 전 청순 발랄한 캐릭터를 주로 맡았던 이민정은 이번엔 전남편이 재벌이 되자 재결합을 노리는 돌싱녀로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다.

/박동준기자

강남스타일 유튜브 조회 19억뷰 돌파

세계적인 히트곡인 싸이(사진)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 수 19억 뷰를 돌파했다.

'강남스타일'의 뮤직비디오는 8일 오전 19억 뷰를 넘어 오후 4시 기준으로 19억29만여 건을 기록 중이다. 2012년 7월 15일 유튜브에 게재된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는 공개 51일째인 9월 4일 1억 뷰를 돌파했고 같은 해 12월 22일 유튜브 사상 최초로 10억 뷰 조회 수를 넘기며 최단기간, 최다 조회 수 기록을 세웠다.

또 지난해 4월 6일 15억 뷰를 돌파하며 자신의 기록을 계속 갈아치운 데 이어 지난해 10월 23일 18억 뷰를 넘어섰다. 이후 약 3개월 보름여 만에 다시 19억 뷰를 넘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꿈의 20억 뷰 돌파도 연내 가능할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강남스타일'의 후속곡인 '젠틀맨' 유직비디오는 8일 기준으로 6억3730만 뷰를 넘어서고 있다. 싸이는 새 앨범 발매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유순호기자

'불후의 명곡' 거미 445점 신기록 우승

기수 거미가 KBS2 '불후의 명곡-전설을 노래하다' 첫 출연에서 신기록을 세웠다.

거미는 8일 방송된 주현미 편에 첫 출연해 2011년 '불후의 명곡'이 첫 방송된 이후 최고 점수인 445점을 받고 우승을 차지했다. 주현미의 '추억으로 가는 당신'을 솔풀한 발라드로 편곡해 애절한 감성을 담아 표현한 거미는 500여 명의 청중평가단은 물론 현장 스태프들까지 사로잡으며 명품 보컬의 위력을 발휘했다.

방송 후 거미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는 등 크게 화제가 됐으며, 이날 방송 장면은 곧바로 유튜브에서 화제의 영상으로 떠올랐다.

한편 거미는 지난달 프로듀서 김원의 프로젝트 앨범 '더 리릭스'의 네 번째 곡인 '내 생각날 거야'로 큰 인기를 모았다. /유순호기자

비가 5년 만의 일본 팬미팅을 위해 5000여 명의 환호를 받으며 7일 도쿄 하네다 공항에 들어서고 있다.

비, 5000여 열도팬 들었다 놨다

5년만에 日 팬미팅서 이벤트·히트곡 등으로 분위기 끌어올려

국경을 넘어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비(사진)가 일본에서 5년 만에 팬미팅을 개최했다.

비는 7일 일본 요코하마 퍼시피코에서 두 번째 일본 공식 팬미팅을 열고 5000여 명의 팬과 만났다. 2009년 일본에서 1기 팬미팅을 개최한 이후 군 복무 등으로 오랜 공백기를 보낸 비는 컴백 활동과 함께 다시 현지에서 공식 행사를 열고 팬들을 직접 시켰다. 행사에 앞서 공항에만 500여 명의 팬들이 몰려 열렬히 환영했다.

비는 지난해 7월 국내에서 월드팬미팅에도 아시아와 유럽, 북미, 남미 등 다양한 지역의 팬들을 불러모아 월드스타의 인기를 확인했다.

비는 미국에서 할리우드 영화 '더 프린스' 촬영을 마치고 국내에 귀국한 뒤 짧은 스케줄을 소화하고 곧바로 일본으로 향했다. 근황 토크와 미리 발렌타인데이 이벤트, 편지 낭독 등으로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고 신곡 '라 송' '30 섹시'는 물론 히트곡 '태양을 피하는 방법' '잇츠 레이닝' 등을 불러 분위기를 절정으로 끌어올렸다.

비는 "오랜만에 일본 팬미팅으로 만나게 돼 기쁘다. 이번 정규 6집 활동을 하는 동안 한국을 직접 찾아 열정적인 응원을 해줘서 고맙고 행복했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비는 지난 7일 타이틀곡 '사랑해'를 포함한 정규 6집 리패키지 음반을 발매했다. /유순호기자

방송사 올림픽 중계 스타트… SBS 먼저 웃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이 막을 열면서 방송가에 중계 특수가 시작됐다.

한국 대표팀의 첫 메달 유망주인 이승훈이 출전한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0m 경기 중계는 8일 오후 8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SBS와 MBC에서 동시에 생중계됐고, 평균 시청률 13.5%(이하 닐슨코리아)와 13.0%를 각각 기록했다.

오후 10시58분부터 11시6분까지 진행된 이승훈과 斯트리프 베르흐의 13조 경기 중계는 SBS 25.6%, MBC 22.8%까지 치솟았다. KBS는 중계를 하지 않은 가운데 거의 절반의 국민이 한 경기를 두 채널로 나눠 본 셈이다.

이같이 국민의 관심 종목이 아니었던 프리스타일스키 여자부 예선 서지원 경기(SBS·오후 11시23~25분)와 서정화 경기(SBS·오후 11시17~19분)도 11.3%와 8.4%의 시청률을 각각 기록했다. 밤 12시46분 시작된 루지 남자부 싱글 예선 김동현 경기(SBS)도 7.5%를 기록했다.

방송사들의 중계 전쟁도 초반부터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 선수가 출전한 첫 주요 경기인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0m 경기 중계에 SBS는 자사 간판 스포츠 캐스터인 배성재 아나운서를, MBC는 자사 아나운서 출신의 인기 스포츠 캐스터 김성주를 내세웠다. 첫 대결에서는 SBS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유순호기자

영화처럼 생명 구한 이스트우드

질식 위기 남자 구명법으로 목숨 살려

할리우드의 명감독이자 배우인 클린트 이스트우드(사진)가 한 남성의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미국 언론들은 8일(현지시간) 이스트우드가 이달 초 캘리포니아 중부 해안도시 카멜에서 열린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로암 대회의 연회 도중 치즈 조각이 목에 걸려 호흡곤란에 빠진 대회 관계자 스티브 존을 응급 처치로 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스트우드는 존의 등 뒤에서 하임리히 구명법(목에 이물질이 걸린 사람을 뒤에서 안고 흉골 밑을 세게 밀어 올려 토하게 하는 방법)을 실시했다.

하임리히 구명법을 처음 시도해 봤다는 이스트우드는 "존의 눈에서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과 같은 느

낌이 전해졌다"며 "구명법을 세 차례 실시했더니 치즈 조각을 토해냈다"고 말했다.

존은 "이스트우드를 쳐다봤는데 갑자기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다행히 이스트우드가 일어서더니 내 뒤로 다가와 목숨을 구해줬다"고 고마워했다. /박진환기자

'아메리칸 허슬' '노예 12년'… 예술영화 한눈에

CGV 청담씨네시티 19~25일

작품성 높은 예술영화를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제3회 마리끌레르 영화제가 19~25일 CGV 청담씨네시티에서 열린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다음달 열릴 아카데미시상식에서 각각 10개 부문과 9개 부문 후보에 오른 기대작인 데이비드 O 러셀 감독의 '아메리칸 허슬'(사진)과 스티브 맥퀸 감독의 '노예 12년' 등 총 34편이 상영된다. 이 두 작품은 각각 개막작과 폐막작으로 선정됐다.

또 덴마크의 거장 빌 어거스트 감독의 신작 '리스본행 야간열차'와 메릴 스트리프와 줄리아 로버츠가 출연한 '어거스트: 오세이지 카운티',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의 이면을 그린 '파크랜드', 톰 포츠의 음악 인생을 그린 '원 챈스', 마이클 더글러스·모건 프리먼·로버트 드 니로·케빈 클라인 등 4명의 노배우들에 명연기를 펼치는 '라스트 베가스'도 볼 수 있다. /박진환기자

'야간비행' 곽시양·이재준, 임달화와 깜짝 만남

영화 '야간비행'으로 베를린국제영화제를 찾은 주연배우 곽시양과 이재준이 현지에서 홍콩 스타 임달화와 깜짝 만남을 가졌다.

'야간비행' 제작진은 8일 공식 트위터에 '베를린에서의 만남! '야간비행'과 임달화 배우와의 우연한 만남'이라는 글과 함께 세 사람이 나란히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이들이 영화제에서 우연히 같은 장소에서 마주해 촬영한 것이다.

'야간비행'은 괴물 같은 학교에서 살아남고자 스스로 괴물이 돼버린 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중학교 시절 친구였던 용주(곽시양)·기웅(이재준) 기택 사이에 벌어지는 폭력과 배신, 방황 등을 통해 입시 경쟁, 인권 교육 부재, 소수자 차별, 계급 문제 등 학교 사회 시스템의 불균형을 깊이 있게 그려내 이번 베를린국제영화제 비경쟁부문 파노라마에 공식 초청됐다.

왼쪽 둘째부터 순서대로 곽시양·임달화·이재준 /'야간비행' 공식 트위터

7일 진행된 '야간비행' 월드 프리미어 현장에는 이송희일 감독과 곽시양·이재준이 참석해 언론과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후회하지 않아' '백야'에 이어 베를린국제영화제와의 세 번째 만남을 이룬 이 감독이 수상의 쾌거까지 이룰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영화제는 독일 베를린에서 6일 개막했으며 16일 폐막한다. /박진환기자

실화영화 논란되면 뜬다?

Issue&View

도마위 오른 작품 흥행 돌풍

/박진환기자 hstar1427@metroseoul.co.kr

민감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이 잇따라 논란에 휩싸여 눈길을 끈다.

6일 개봉한 '또 하나의 약속'(사진)이 롯데시네마 상영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외압 논란'에 휩싸였다.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고 황유미씨와 딸의 죽음에 삼성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고군분투한 아버지 황상기씨의 실화를 다뤄서 불거진 논란이다.

롯데시네마가 초기 7개 관만을 배정한 것을 두고 제작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며, 외압설이 힘을 얻고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고, 롯데시네마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대응했다.

13일 개봉 예정인 '신이 보낸 사람'도 개봉 전 '신천지 투자설'과 연관돼 논란이 됐다. 탈북한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의 실화를 다룬 내용 때문이다. 제작사는 신천지를 향해 "영화가 종교단체 신천지의 홍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법적으로 강경 대응하겠다"고 강하게 반박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앞서 개봉한 '변호인' 역시 고 노무현 대통령과 부림사건을 모티브로 했다는 이유로 개봉 전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이며 '평점 테러'와 '예매 취소 테러'를 당한 바 있다.

신천지 투자설 '신이 보낸 사람' 예매율 6위 외압설 '또 하나의 약속'도 인기몰이 예감

◆ 논란은 초반 관심으로 이어져

그러나 개봉 전 영화를 둘러싼 논란은 개봉 후에 오히려 영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 하나의 약속'은 상영관 논란이 확대되자 예매율이 상승했다. 개봉 하루 뒤인 7일에는 흥행 10위권 영화 중 가장 적은 158개 스크린에서 상영됐지만 박스오피스 5위에 올랐다. 9일 현재 스크린 수는 192개로 늘어났고, 누적관객 수는 5만 명을 넘겼다. 현재 좌석 점유율 1위, 실시간 예매율 3위를 기록 중이다.

'신이 보낸 사람' 역시 톱스타 한 명 없는 저예산 영화인데도 같은 날 개봉 예정인 할리우드 액션 대작 '로보캅'과 엄정화·문소리 등이 출연하는 '관능의 법칙'을 제치고 예매율 6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앞서 '변호인'을 둘러싼 논란도 관객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켜 1000만 관객 동원에 적지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물론 논란이 반드시 흥행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한 영화 관계자는 "'변호인'은 논란을 넘어 모두가 공감할 만한 도전과 용기에 대한 가치, 배우들의 열연 등이 깊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에 흥행이 가능했던 것"이라면서 "장기 흥행으로 이어지려면 작품성이 담보돼야 한다. 단순한 논란만으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봉 24일만에 700만 돌파…'트랜스포머'보다 흥행속도 일주일 빨라

디즈니 뮤지컬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사진)이 700만 관객을 넘었다.

9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겨울왕국'은 개봉 24일 만인 8일 50만6126명을 불러모아 누적 관객 수 721만2868명을 기록했다.

앞서 역대 최고 흥행 애니메이션이었던 '쿵푸팬더 2'(502만 명)의 기록을 넘은 이 영화는 이로써 애니메이션 최초로 700만 관객을 돌파했다. 또 '어벤져스'(707만 명)까지 제치고 역대 외화 흥행 순위 7위에 올랐다.

흥행 속도는 32일 만에 700만 관객을 넘어선 역대 외화 흥행 순위 6위인 '트랜스포머: 패자의 역습'(739만 명)보다 무려 일주일 이상 빠르다.

영화가 개봉 4주차인 현재까지 여전히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 중인 데다 삽입곡 '렛 잇 고' 열풍도 거세 지금과 같은 흥행 속도라면 조만간 800만 관객을 넘을 것으로 배급사 소니 픽쳐스 릴리징은 내다봤다.

역대 외화 흥행 순위 1~5위는 '아바타'(1330만 명), '아이언맨3'(900만 명), '트랜스포머3'(778만 명),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750만 명), '트랜스포머'(740만 명)다.

한편 '수상한 그녀'는 8일 43만7310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2위를 기록, 누적 관객 수 500만 명을 넘었다. '남자가 사랑할 때' '피끓는 청춘' '인간중독'… 또 하나의 약속'이 그 뒤를 이었다. /박진환기자

metro sochi

가자! 코리아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 대표팀이 9일 러시아 소치 해안 클러스터 스케이팅 트레이닝 베뉴에서 맹훈련을 하고 있다. 세계 최강의 권좌 회복을 노리는 한국 대표팀은 10일 남자 1500m 예선과 결선, 여자 500m와 여자 3000m 릴레이 예선에 출전해 메달 레이스에 돌입한다. /연합뉴스

여자 스피드 3000m 김보름 등 메달 좌절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3000m에 출전한 김보름·노선영·양신영이 중하위권에 머무르며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9일(한국시간) 러시아 소치 아들레르센터에서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3000m에 출전한 김보름은 4분12초08을 기록하며 14위에 올랐다. 이날 김보름이 기록한 14위는 한국 선수가 여자 3000m에서 올린 최고 순위다.

쇼트트랙 선수로 활동하다 2011년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전향해 태극마크를 단 김보름은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선전했다.

반면 4분19초02를 기록한 노선영과 4분23초67을 기록한 양신영은 각각 26위, 28위에 그쳤다.

금메달은 4분00초34로 결승선을 통과한 이레네 부스트(네덜란드)가 차지했다. 마르티나 사블리코바(체코), 올가 그라프(독일)가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의 영예를 안았다.

/이재영기자 ljy0403@

크로스컨트리 황준호 남자 30km 추적 68위

한국 남자 크로스컨트리의 간판 황준호(21·단국대)가 세계 무대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

황준호는 9일(한국시간) 러시아 소치의 라우라 크로스컨트리 스키 바이애슬론 센터에서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크로스컨트리 남자 30km 추적 경기에 출전해 참가선수 중 최하위인 68위를 기록했다.

이날 경기에서 하위권으로 출발한 황준호는 경기 내내 이렇다 할 활약을 보이지 못했다. 12.5km 구간에서 잠시 67위를 기록했지만 18km 구간에서 다시 최하위로 내려앉았다. 결국 황준호는 67위 비타우타스 스트롤리아(리투아니아)가 1시간20분37초2로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68위로 마무리했다.

금메달은 스위스의 다리오 콜로냐가 차지했다. 은메달은 스웨덴의 마커스 헬너, 동메달은 노르웨이의 마르틴 존스러드 순비가 각각 목에 걸었다.

/이재영기자 ljy0403@

국가별 메달 순위 (9일 23시 30분 현재)

순위	국가	금	은	동	합계
1	노르웨이	2	1	3	6
2	네덜란드	2	1	1	4
3	미국	2	0	1	3
4	캐나다	1	1	1	3
5	오스트리아	1	1	0	2
6	스위스	1	0	0	1
7	스웨덴	0	2	0	2

모태범, 이승훈 '한풀이 금사냥'

오늘밤 500m 출전…"어게인 밴쿠버" 올림픽 2연패 도전

sochi.ru 2014

모태범(25·대한항공·사진)이 절친 이승훈(26·대한항공)의 아쉬움을 설욕하며 올림픽 2연패에 도전한다.

모태범은 10일 오후 10시와 11시 55분 각각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 1·2차 레이스에 출전한다. 앞서 열리는 남자 쇼트트랙 1500m에서 한국의 첫 메달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금메달 전망은 모태범 쪽이 더 밝다.

2010 밴쿠버 올림픽에서 500m 금메달, 1000m 은메달을 목에 건 모태범은 두 종목에서 모두 절정의 기량을 보이고 있어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사상 첫 2관왕 탄생도 기대할 수 있다. 2개월 전 열린 월드컵 4차 대회에서도 500m와 1000m 모두 우승을 차지했다.

500m에서는 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지난해 3월 세계종목별선수권대회 500m 우승으로 대회 2연패를 달성했고, 올 시즌 월드컵 1~4차 대회 8번의 레이스에서 총 527점을 얻어 500m 부문에서는 굳건히 정상을 지키고 있다.

이번 올림픽 500m는 한·일전으로 더욱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일본의 가토 조지(29)는 밴쿠버 대회에서 우승 후보로 꼽혔지만 신성 모태범에게 우승을 내주고 동메달에 그쳤다. 가토는 이번 시즌 월드컵 4차 대회에서도 모태범(34초876)과 1000분의 2초 차이로 2위를 기록하는 등 박빙의 승부를 이어오고 있다.

가토의 도전이 만만치 않지만 모태범은 네덜란드 전지훈련을 거치며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대표팀 케빈 크로켓 코치는 "모태범은 현재 상태라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다. 모태범의 기록과 정보를 말해줄 수는 없지만 얼마나 빨랐는지 놀랄 정도였다"고 기대감을 높였다.

500m에는 6회 연속 올림픽에 출전한 '맏형' 이규혁(36·서울시청)과 이강석(29·의정부시청), 김준호(19·강원체고)가 동반 출전한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아이쿠! 아사다…단체전서 엉덩방아 '부진'

일본 피겨스케이팅의 간판스타 아사다 마오(24·사진)가 2014 소치 동계올림픽단체전에서 엉덩방아를 찧는 등 부진한 경기를 펼쳤다.

아사다는 9일 러시아 소치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린 대회 피겨스케이팅 단체전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기술점수(TES) 31.25점과 예술점수(PCS) 33.82점, 감점 1점 등 64.07점을 받았다.

율리아 리프니츠카야(러시아·72.90점), 카롤리나 코스트너(이탈리아·70.84점)에 이은 3위다. 특히 올 시즌 국제대회를 통틀어 쇼트프로그램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20일 시작할 개인전 여자 싱글을 앞두고 실전 감각을 다듬는 이날 경기에서 아사다는 자신의 전매특허인 트리플 액셀 점프를 시도했으나 엉덩방아를 찧어 수행점수(GOE) 1.50점이 깎였다.

/박현진기자 jak1427@

이승훈 "현지적응 문제 있었다"

5000m 12위 그쳐…1만m·팀추월 메달 도전

이승훈이 대회 첫 경기에서의 부진을 털고 재도약을 노린다.

9일 저녁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0m에 출전해 12위에 머물렀던 이승훈은 이튿날인 9일 오전부터 러시아 소치의 아들레르 아레나에서 훈련을 재개했다.

이날 대표팀 선수 중 가장 먼저 경기장에 나와 40분가량 연습에 집중했다.

이승훈은 훈련 후 취재진과 만나 "자신감이 있었고 준비도 철저히 했는데 부족했던 것 같다. 네덜란드와 유럽의 벽은 꿈을 것 같았다"고 전날 경기 소감을 전했다. 이어 "스벤 크라머르의 우승은 예상했지만 2, 3위 선수의 기록은 예상보다 저조해 자신감이 있었다"며 "하지만 출발할 때부터 여유가 없어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러시아에 와서 잠을 잘 못 자고 현지 적응을 잘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승훈은 18일 1만m, 22일 팀추월에서도 메달에 도전한다.

/유순호기자

'한국 vs 안현수' 피할 수 없는 첫 대결

오늘 오후 6시45분 쇼트트랙 1500m 남자 경기
이한빈·신다운·박세영 등 대표팀과 메달 경쟁

러시아 대표팀으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안현수(29·러시아명 빅토르 안)가 마침내 올림픽에서 조국을 상대로 숙명의 첫 대결을 벌인다.

안현수는 10일 오후 6시45분 시작되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500m 경기에 출전한다. 이날 예선과 결선이 모두 치러져 메달 주인공까지 가려진다. 안현수는 한국의 이한빈(26·성남시청), 신다운(21·서울시청), 박세영(21·단국대)과 정면 승부를 벌인다.

1500m가 안현수의 주 종목은 아니지만 현재 절정의 기량과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 한국·중국·미국·캐나다 등 전통의 강호들을 제치고 러시아에 첫 쇼트트랙 금메달을 안겨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관중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을 홈 어드밴티지도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로 종합 11위에 그치며 스포츠 강국의 체면을 구긴 러시아는 명예 회복을 위해 안현수에게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안현수는 2006년 토리노 올림픽에서 1000m와 1500m, 5000m 계주에서 우승해 3관왕에 올랐고 500m에서도 동메달을 따며 쇼트트랙 역사상 처음으로 전 종목 시상대에 올랐다. 한국이 배출한 역대 가장 훌륭한 쇼트트랙 선수로 꼽히는 그는 부상과 대한빙상경기연맹과의 불화, 소속팀 해체 등이 겹치며 고민 끝에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다.

2012~2013시즌 월드컵에서 러시아 대표로 처음 출전한 그는 1000m 금메달을 따며 화려하게 재기했다. 지난해 2월 소치에서 열린 5차 대회에서는 러시아에 사상 첫 월드컵 5000m 계주 금메달도 안겼다. 올 시즌 월드컵에서도 500m 최강자 샤를 아믈랭(캐나다)을 물리치고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체력은 다소 떨어졌지만 스피드와 날카로운 스케이팅 기술은 전성기 못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한국 대표팀은 팀 안팎으로 악재를 겪으며 안현수의 활약에 힘겹게 맞서는 처지가 됐다. 이한빈은 안현수의 한국체대 3년 후배이자 해체된 성남시청에서도 함께 아픔을 겪은 각별한 사이다. 지난해 4월 선발전에서 전체 1위로 태극마크를 달며 대표팀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

함께 출전하는 신다운은 2013~2014시즌 갑작스러운 부진에 빠졌지만 지난 시즌에는 세계선수권 1000m, 1500m와 종합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의 기대주로 떠올랐다.

/유순호기자 suns@metroseoul.co.kr

고장난 소치…욕실 문의 최후

美 봅슬레이 선수 안열리자 밀기기술로 '산산조각' 내

부실한 대회 준비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욕실 문이 열리지 않아 한 선수가 문을 부수고 나오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났다.

미국의 봅슬레이 선수 조니 퀸(31)은 8일 자신의 트위터에 "샤워를 하던 중 문이 잠겼고 열리지 않았다. 도움을 청할 전화도 없었기에 봅슬레이 훈련을 하면서 익힌 밀기기술을 사용해 빠져나왔다"면서 산산조각이 난 숙소 욕실 문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

퀸은 미국 프로풋볼(NFL)과 캐나다프로풋볼(CFL)에서 활약한 전직 미식축구 선수이기도 하다.

스위스 매체 '20분'의 기자도 30분가량 호텔의 화장실에 갇혔다. 퀸과 마찬가지로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가 갇힌 이 기자는 어깨로 문을 들이받았지만 문을 부수지 못했고, 옆방의 소란을 눈치 챈 동료의 도움으로 빠져나왔다.

소치 선수촌에는 예상보다 많은 선수들이 몰리면서 때아닌 베개 부족 현상도 생겼다. 해외 언론들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가 인근 주민들의 베개라도 가져와서 선수촌에 배분할 수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소치 동계올림픽은 역대 동계올림픽 통틀어 역대 최고인 약 500억 달러(약 54조원) 이상의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지만 개막 전부터 부실한 준비로 비판을 받았다.

이미 칸막이가 없이 변기 2개가 붙어있는 화장실, 녹물로 추정되는 수돗물 등이 공개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8일 열린 개막식에서는 올림픽의 상징인 오륜기 장치 고장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

열리지 않아 부서진 욕실 문 /조니 퀸 트위터

/박선영기자

소치 하이라이트

10일 한국 주요 경기(한국시간)

날짜	종목	세부 종목	경기 시각	한국 선수
10일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	22시	모태범 이강석 이규혁 김준호
	쇼트트랙	남자 1500m 예선·결선	18시 45분	신다운 이한빈 박세영
		여자 500m 예선	19시 27분	심석희 박승희 김아랑
		여자 3000m 예선	20시 33분	심석희 박승희 김아랑 조해리
	프리스타일스키	남자 모굴	23시	최재우
	루지	여자 1인승	23시 45분	성은령

노르웨이 '바이애슬론 영웅' 마흔살의 금빛 투혼 노르웨이의 바이애슬론 영웅 올레 에이나르 비에른달렌이 8일 열린 소치 동계올림픽 바이애슬론 남자 스프린트 10km에서 역주하고 있다. 올해 마흔 살인 그는 24분33초5로 금메달을 목에 걸어 동계올림픽 사상 최초로 개인 종목 40대 우승자라는 기록을 세웠다. 그는 우승을 차지한 뒤 "내가 40세라는 사실은 잊고 있었다"고 말했다. /AP 연합뉴스

볼턴 이청용 13개월 만에 "골맛 좋~다!"

박지성 7경기 연속 선발

이청용(26·사진)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2부 리그) 볼턴 유니폼을 입고 13개월 만에 골 맛을 봤다.

9일 영국 볼턴의 리복 스타디움에서 열린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이청용은 전반 21분 페널티 지역 중앙에서 마크 데이비스의 패스를 받아 선제골을 터뜨렸다.

이청용은 지난해 1월 선덜랜드와의 FA컵 64강전 이후 골 가뭄에 시달려왔다. 올 시즌 챔피언십 28경기에 출전해 4차례 어시스트만 기록했다. 대표팀에서는 지난해 11월 스위스와의 평가전 때 골을 넣었다. 볼턴은 이날 본머스와 2-2로 비겼다.

박지성(33·에인트호번)은 7경기 연속 선발 출전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에인트호번은 9일 네덜란드 에인트호번 필립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3-2014 네덜란드 프로축구 에레디비지에 23라운드 FC 트벤테와의 홈경기에서 3-2로 이겼다. 9일 캄뷔르전에 이어 2연승이다. 중앙 미드필더를 맡아 풀타임 활약한 박지성은 공격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노련한 경기 운영과 나이를 무색게 하는 강한 체력으로 중원 사령관 역할을 충실히 했다.

한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기성용(25·선덜랜드)과 김보경(25·카디프시티),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마인츠에서 함께 뛰는 박주호(27)와 구자철(25)도 선발 출전했지만 공격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이들이 소속한 팀들 모두 패했다.

/유순호기자

프로농구 전적 (9일)

팀	1Q	2Q	3Q	4Q	합계
인삼공사	14	13	15	21	63
LG	19	22	19	14	74
모비스	21	17	23	20	81
전자랜드	15	22	16	24	77
삼성	21	9	20	17	67
동부	8	15	21	18	62
KDB생명	22	19	17	13	71
국민은행	11	12	20	21	64

프로배구 전적 (9일)

팀			팀
LIG손해보험	3	2	현대캐피탈
삼성화재	0	3	러시앤캐시
도로공사	1	3	IBK기업은행